

윤 대통령, 오늘부터 프랑스·베트남 4박6일 순방길 역대 최대 경제사절단 동행

파리 BIE 총회서 부산엑스포 유치 영어연설
베트남 K-푸드 페스티벌서 한국식품 홍보
농기계, 스마트팜, 전통주 업계 관계자 동행

윤 대통령은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 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세계 박람회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 직접 나서 영어 연설을 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마지막 연사로 참여해 PT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앞서 가수 싸이와 학계 및 스타트업 대표 등 각계각층의 연사들이 연설 발표를 할 예정이다.

성악가 조수미, 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 등도 영상을 통해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에 나선다.

대통령실은 "올해 11월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회원국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영상과 발표로 지루할 틈 없이 약 30분 간의 경쟁 PT를 이어가 개최 당위성을 호소력 있게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중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어 22일부터는 베트남을 국민 방문한다. 보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 이어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쑹 공산당 서기장, 팜 민 쯔 총리, 브영 딩 후에 국회의장 등 최고지도부와 개별적으로 면담한다.

베트남 국민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농업계에선 김신길 아세아텍 대표(농기계), 강성민 우드자팜 대표(스마트팜), 정승환 새마을 대표(//), 차미지 원스파리츠 경영기획실장(전통주), 조장환 아토컴퍼니 대표(//), 박명수 바레롱비료 영농조합법인 대표(비료) 등이 함께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열리는 케이푸드(KFood한국식품) 페스티벌 현장을 찾아 케이푸드를 홍보할 계획이다.

이남출/기자

2023 6.19. - 6.24.

프랑스 BIE 참석 및 베트남 국민 방문

6.19. - 6.21. 프랑스

- 한-프랑스 정상회담
- BIE 총회 프레젠테이션
- 한-프랑스 미래 혁신 세대와의 대화
-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 유럽지역 투자신소식

6.22. - 6.24. 베트남

- 한-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 참가
- 한-베트남 정상회담
- 현지 진출 대표 기업인들과의 오찬
-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 한-베트남 디지털 미래세대와의 대화

서울시-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청년 마음건강위해 힘 모은다

서울시-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19일(월) 마음건강 등 청년정책 업무 협력 약속



서울시와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이 청년의 마음건강, 활력 증진을 위한 청년정책 업무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6월 19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이상목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올해 1만명 규모로 정확한 상태 진단, 전문 상담 등을 통해 청년들의 심리안정을 지원하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4월에는 고립·은둔 청년 중합대책도 발표하여 고립감을 느끼거나 은둔하는 청년의 정서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했다.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은 청년의 마음건강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통해 청년이 자신의 삶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Look at ME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의 주요 사항은 ①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에서 실시하는 마음건강 프로그램에 서울 청년정책 참여자 우선 지원, ②마음건강 관련 행사 진행 시 상호 협력, ③청년정책 참여자 대상 진로 탐색 및 실무 경험 기회 제공, ④청년 마음건강 관련 대외 홍보 협력 등 4가지다.

첫째,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에서 실시하는 마음건강 프로그램에 서울 청년정책 참여자, 특히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과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참여자를 우선 지원한다. Look at ME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학 캠퍼스를 찾아가는 마음건강' 지원사업과 청년을 위한 '테라피' 프로그램, '직무탐색 및 실무체험 교육' 등이 대상이다.

둘째, 마음건강 관련 행사 진행 시에

도 상호 협력한다.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은 재단이 개최하는 각종 마음건강 관련 행사에서 서울시가 마음건강 지원 등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열리는 9월 청년주간에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에서 개최하는 마음건강 페스티벌에 서울 청년정책 참여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직무탐색 및 실무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해서도 협력한다.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 등 청년정책 참여자 대상으로 아모레퍼시픽 현직자 멘토링, 실무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양 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홍보매체,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청년 마음건강 및 고립·은둔 청년 지원과 관련된 대외 홍보에도 협력한다. 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서울 청년의 정책 체감도와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력 분야와 사업을 계속 확대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번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청년의 힐링과 마음건강은 각박한 현실을 반추하여, 도전과 열정이라는 청년다움을 되살리는 기회이자 불안의 시대를 대비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업, 취업, 결혼, 주거 등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민관협력사업의 지속 확산으로 공공 전달체계를 넘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목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이사장은 "지난 해 설립 40주년을 맞아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에 나선 재단이 사회적 고립과 마음 건강에 주목하게 됐다"며, "이번 서울시와의 협약을 통해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의 청년 지원사업과 서울시의 정책지원 인프라가 결합되어 미래 서울의 주체인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민관협력의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김학홍 행정부지사, 우기 대비 재해예방사업장 현장점검 나서...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19일,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 영덕 강구 일원에 추진 중인 재해예방사업장 점검에 나섰다.

최근 발생한 태풍집중호우피해지역인 강구시장 일원의 강구초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장 및 강구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과 우기철 대비 현장 위험요인 제거와 재해방지를 위한 집중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재해예방사업장을 찾은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현장 점검을 둘러보고 위험요인을 살펴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및 배수펌프장, 저지대 침수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재해예방 사업장 조속 완공 및 안전관리 철저 당부



강구초등학교 내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296억원(국비 14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산지부 유역에서 발생하는 유수의 합류와 오실천의 상승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으로 시가지 건물 786동(786세대 1천589명)의 침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강구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70억원(국비 85억원)을 투입해 태풍집중호우 시 급경사지 사면부에 낙석 등 붕괴로부터 시가지 건물 14동(14세대 24명)에 대한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인명보호를 위한 사업이다.

GOOD AIR CITY 인증도시

대한민국의 숨, 울진

대한민국이 숨쉬고 모두가 함께 숨쉬는 땅, 울진

대한민국의 숨, 울진은 동해바다의 푸른공기와 금강송의 맑은공기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맑은공기 모범도시(GOOD AIR CITY 인증도시)울진을 상징합니다.



2023년 경상북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

경북도는 지난 15일 기업의 품질경영 우수분임조 발굴과 올해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출전팀을 선발하는 「2023년 경상북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구미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사무간접, 상생협력 등 10개 부문에 12개사 17개 분임조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폴더블폰 코어적층공정 개선’을 발표한 「삼성전자 MX사업부」솔루션 분임조, ‘천연가스 공급 계획제어 설비 개선’의 「한국가스기술공사 대구경북지사」 등대지기 분임조가 각각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과 최우수상을 포함한 16개 분임조는 오는 8월 개최될 제49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경북도 대

16개팀 선발, 8월 전국대회 경북도 대표로 출전



표로 출전하게 된다.

한편, 이날 현대제철 포항공장 정원옥 팀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풍산 안강사업장의 류영하 차장 등 지난해 전국대회에서 금상 수상 공적이 있는 13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영석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현장의 품질개선 활동은 기업 경쟁력 확보로 이어진다”라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품질경영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전라북도의회 예결특위, 부교육감 대상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심사 돌입

교육의 질 높일 수 있도록 각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모색 당부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 전주2)는 19일 부교육감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부교육감 대상 정책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승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1)은 인구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통폐합과 관련, 학교 통폐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공동체역량을 강화시키기 어려운 만큼, 아이들의 사회성이 발달될 수 있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업추진 절차 방식의 문제점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학교 혁신을 위해 교장 직위에 대한 개방형 공모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 역시 전북 하이테크고등학교 국제교류 수업과 관련하여 금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각 학교의 국제교류 사업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추진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교류 수업 추진을 위한 여행업체 선정에 있어, 극성수기인 방학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해당시기에 항공료가 고가인 만큼, 선정된 업체는 비용절감을 위한 기타예산 절감을 하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전반적인 사업추진 시기 및 방식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동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2)은 도내 초·중·고 학생의 학업중단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전라북도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추진과 관련하여 전문 특화과정 교육 및 취업 연계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확보는 물론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진형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2)은 학교폭력 외의 사함에 대한 징계로 출석정지가 요구된 경우가 있는지 질의하며, 학교폭력에 따라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조치를 위해 필요한 출석정지 사항이 아니라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정지제도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태블릿PC, 노트북 구입 등 스마트기기 보급을 위한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사업’이 882억의 대규모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1개 업체만 지원하여 유찰된 후, 재공고로 진행중인 점을 언급하며, 재공고에도 유찰 시, 소의계약 진행은 가능하나, 예산의 규모나 사업의 중요성을 판단한 최적의 방식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당부했으며, 입찰 시, 도내우수 기업과의 상생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최근 도내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무면허 운전 등을 강요한 사건에 대해, 교사가 개인적 비공식적으로 학생들을 불러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철저한 지도를 요청했으며, 향후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들과의 활동에 대한 기준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마약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질의하며, 상당 등 학생들과의 적극적·지속적 소통을 통한 생활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정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내부 직원과의 소통 및 업무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교육청 기관앱에 사인 등 필요정보가 누락되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교원들의 협조를 주문했다.

또한, 단순한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보다는 농촌유학 등을 통한 특성화학교 운영 등을 통해 인구가 적은 지역의 학부모들이 학교의 폐교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실)은 전북 하이테크고등학교 국제교류 수업 추진과 관련,

이남철/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반포천 복개주차장, 고속터미널몰 현장 점검

반포천 복개주차장과 지하철역(고속터미널역)과 연계 설치된 대형상가(엔터시스, 고투몰) 현장점검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박중화, 국민의힘, 성동1)는 제319회 정례회 기간인 6월 16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인근 반포천 복개주차장과 고속터미널역 대형상가(엔터시스), 터미널 지하도상가(고투몰)를 방문했다.

이 날 현장점검은 박중화 위원장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서울시 주차계획과, 서울시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 등이 참석했으며, 반포천 복개주차장과 고속터미널역 대형상가(엔터시스), 터미널 지하도상가(고투몰) 내 차수막 설치 현황, 현장 방재설 등을 점검하고 업무보고와 질의응답이 함께 이루어졌다.

반포천 복개주차장은 현재 서울시시설공단이 대형·관리하며 제3차 위탁 주민간사업자인 (주)신세계센터빌리티가 민자 운영중으로, 주차장 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다.

고속터미널 지하도 상가는 서울시시설공단의 관리감독하에 (주)고투몰에서 운영하고 있고, 고속터미널역상가는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역내 시설물로 현재 (주)엔터시스쇼핑몰에서 설치·운영중으로 의류, 잡화 등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입점해 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현장 질의 응답

을 통해 상가 위탁과 관련한 입찰 방식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발생 시 조치방안에 대해 논의 하는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22년 8월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며 서초·강남 등 저지대가 많은 반포천 복개 주차장이 침수된 바 있으며, 현재 반포천 복개주차장 내 차수막 설치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 방문을 마친 박중화 교통위원장은 “고속터미널역은 지하철 3,7,9호선이 연계되는 교통의 중심지일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손꼽히는 대형상권으로 반포천 복개주차장과 고속터미널역 상가 등의 관리감독 주체, 규모 등에 따라 상가 입찰이나 운영 방법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고속터미널역은 다수의 유동인구가 이동하는 장소임에 따라 노후 시설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폭우 등의 재난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특히 당부드린다”고 했으며, “교통위원회에서도 고속터미널역 주변 안전시설의 확보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충남도의회 농수해위, “충남수산물 안전성 확보로 도민불안 불식시켜야”

농업기술원과 해양수산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가져



충남도의회 농수해위(위원장)는 19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농업기술원과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어선 감척을 하면 배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노후 된

배를 감척하고 다시 건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세심하게 챙겨 봐달라”고 말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언론이 뜨겁다. 소금 대란 등 도민들이 불안한 상황으로 결국 향후 수산물 이용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어민만 피해받는다”고 꼬집으며 “철저한 안전성 확보로

도민 불안을 불식시키는 등 대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해양수산국 결산 자료를 보면 인건비 잔액이 약 2억원 정도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력 채용에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인력 채용에 더욱 힘써서 사업 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충남만 보더라도 농업과 관련해 곤충·화훼·과채 연구소 등이 있다. 그러

나 해양수산 관련한 연구소는 수산자원연구소뿐”이라며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남해보다 충남에 김 연구소가 국립으로 설립됨이 타당하다. 정부에 건의하는 등 추진에 특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귀어학교·어촌지도자·수산업경영인 등의 교육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야기”라며 “사유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니, 올해는 사업 추진에 더욱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오안영 위원(아산1·국민의힘)은 “수산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라며 “안전성 검사를 위해 꼭 필요한 보조 근로자를 채용하는 건데 인건비를 상향해서라도 채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귀어학교 교육 운영 잔액이 15%나 발생했는데 오프라인 교육도 좋지만, 청년들의 경우 ICT 기반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발굴해 교육 운영을 더욱 빈틈없이 해 달라”고 말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농업기술원 심사에서 “직파 재배에 대해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과 함께 손익 분석으로 고정비용과 이익에 대한 객관적 분석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양수산국 심사에서 “충남 해역 정화사업과 도서민의 교통 복지를 위한 여객선 지원사업 추진에도 더욱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최정근/기자

성명	소속위원회 (성명, 선거구)	전화번호	비고
진형석 위원장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주2선거구)	휴) 010-4829-8844	
김성수 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창1선거구)	휴) 010-3684-7976	
박정규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실선거구)	휴) 010-8640-5464	
박용근 위원	환경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수선거구)	휴) 010-3663-2700	
임승식 위원	환경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흥1선거구)	휴) 010-3669-6333	
권요안 위원	농산업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완주2선거구)	휴) 010-3670-7092	
김동구 위원	농산업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산2선거구)	휴) 010-4664-5843	
김정기 위원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안선거구)	휴) 010-3681-2243	
이수진 위원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휴) 010-5507-5226	
전용대 위원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안선거구)	휴) 010-4006-3152	
한정수 위원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익산4선거구)	휴) 010-6663-2456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광고국:1899.9659 경제부:내선 (114) 오피니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등포구, 이웃과 나누고 행복을 더하는 영플마켓어때?

기부와 자원 재활용, 생활 속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 대표 가족축제로 만들 것

영등포구가 24일 오전 11시 당산공원에서 '슬기로운 나눔생활, 다시쓰는 영플어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등포 플라마켓의 뜻을 담은 영플마켓은 일상 생활 속 친환경 소비문화와 나눔을 실천하고자 마련된 가족친화 행사로,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개최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슬기로운 나눔생활'을 주제로 물품나눔, 문화나눔, 체험나눔이 펼쳐진다.

먼저 당산공원 중앙광장에서는 사전에 신청을 받은 60팀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1일 나눔마켓의 운영자가 되어 집에서 안 쓰는 의류, 장난감, 신발, 도서 등 다양한 품목을 이웃과 나누거나 판매한다.

다음으로 무대 앞 문화나눔존에서는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시작으로 마술쇼, 버블쇼, 청소년 동아리의 버스킹과 댄스 공연이 연이어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놀이터 앞 체험나눔존에서는 달고나 뽑기, 자가발전 솜사탕 만들기,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키템 만들기, 양말목 공예, 페이스페인팅 그리기, 소방안전체험 등 레트로와 친환경, 안전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을 선보인다. 체험 참가비 1천 원은 전액 사회복

지공동모금회로 전해져 소외된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한편 구는 폐건전지를 새건지로 교환해 주는 재활용 캠페인을 진행하고,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컵 대신 장바구니와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는 등 친환경 착한 축제를 표방한다. 또한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자율 기부함을 운영해 기부 문화 확산에도 동참한다.

구에 따르면 영플마켓이 어린이에게는 가족들과 함께 상품을 진열하고 스스로 판매하면서 올바른 경제 개념을 배우고, 가족들에게는 자원 재사용과 나눔을 실천하며 이웃과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장외경 자치행정과장은 "코로나로 단절됐던 이웃, 가족간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영플마켓을 4년 만에 개최한다"라며 "자원순환과 나눔 문화 확산은 물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영플마켓이 일회성이 아니라 영등포를 대표하는 문화축제이자 플라마켓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축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황신/기자



서초구, 숲속도서관에서 사색과 독서...방배숲환경도서관 24일 개관

새싹, 잎새, 열매 이어진, 고요한 숲 등 사람과 숲의 성장 주기를 반영한 공간

약14만평의 서리풀 근린공원을 뒤덮은 한 자연친화 도서관인 서초구 방배동 일대에 들어선다.

서울 서초구는 오는 24일 도심 숲 속에 친환경 복합문화 공간인 서초구립방배숲도서관(이하 '방배숲환경도서관, 방배동126-1')을 개관한다. 이와 함께 개관 당일 주민들과 축하 자리를 마련하고, 환경을 테마로 한 축제도 연다.

방배숲환경도서관은 연 면적 1,632㎡, 지하1층-지상2층 규모로 지난 2020년 11월 착공해 서리풀근린공원 및 벚꽃데크와 어우러지는 자연 친화적 숲속도서관으로 탄생했다.

이 곳은 일반 도서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환경 테마들이 눈에 띈다. '환경과 문화로 삶을 바꾸는 도서관' 개념을 도입해 설계부터 착공까지 공사 전 과정에 친환경 요소가 들어갔다. 건물 외부는 심포 모양으로 자연을 향유하며 휴식과 명상이 있는 독서문화공간을 만들었으며, 태양광 패널 등 환경개선 공법을 적용했다.

먼저 지상1층의 공간을 살펴보면 '살아있는 숲' 컨셉으로 약 5.6m의 높은 층고에 푸른 숲을 형상화한 벽면 서가를 배치해 마치 숲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을 낼 수 있도록 구현했다.

또, 공간마다 사람과 숲의 성장주기를 반영해 특색있게 꾸며졌다. 새싹(키즈룸)-잎새(어린이자료실)-열매(종합자료실)-이여진(자료열람실)-고요한(서재)-숲의자리(카페)까지 '숲'을 붙인 이름으로 생애 주기별 공간이 차례로 펼쳐진다.

먼저, '새싹, 숲'은 영유아들의 첫 독서 경험에 선사해 줄 공간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행동 패턴을 고려해 연출했다. '잎새, 숲' 어린이자료실은 녹지대가 보이는 큰 창과 다양한 높이의 책장들로 꾸며져 상상력을 자극한다. '열매, 숲' 종합자료실에서는 2만여권의 책들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이 외에도 △환경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여진 숲' 자료열람실 △스파와 탁자 등으로 집처럼 편안한 독서환경을 만든 '고요한 숲' 방배숲서재 △세로웨이스트 및 에코라이프를 실천하는 '숲의 자리'(카페)

페)가 위치한다. 지상2층에는 다양한 환경 교육 및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이는 '작은 숲 및 트인 숲' 세미나실이 총 5개 마련되어 있다.

또한 중정(도서관 내 작은 마당) '햇살, 들과 옥상' 구름, 들은 푸른 잔디가 넓게 펼쳐져 서리풀근린공원을 배경 삼아 상쾌한 산내음과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서리풀공원에서 숲 체험을 하고 도서관으로 돌아와 시와 그림으로 환경과 자연을 표현하는 '숲을 그리는 시인', 환경 도서와 연계한 '사서인형극단'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어린이에서 어른까지 다 함께 환경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24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개관식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연다.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열리는 이날 개관식은 폐접지를 활용한 테이프 커팅으로 시작되며, 서초구 환경교육지원센터와 협한 '환경그림그리기 대회'가 동시에 열린다.

또, 온 가족이 함께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측백나무를 심고 직접 쓴 희망 편지를 달아보는 '서초가족 희망나무 심기'를 비롯해 △유아 대상 '숲은 내친구' 생태감수성 동화구연, △에너지 삼행제' 환경연극 등이 진행된다.

한편 구는 이번 방배숲환경도서관 개관으로 '1권역별 1도서관'을 완성했다. 그간 2013년 반포도서관(반포권역)을 시작으로 △2018년 전국 최초 마을결합형학교인 내곡중학교 내 내곡도서관(내곡권역), △2019년 양재도서관(양재권역), △2020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서초청소년도서관(서초권역) 등을 차례로 개관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14만평의 서리풀 근린공원을 품은 방배숲환경도서관은 온 세대가 독서와 함께 환경에 대해 생각하고, 경험하고 실천하는 공간이다"라며, "앞으로도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흥수/기자

성북구, 서랍 속 우리 학교 이야기를 꺼내주세요!

구의 기록 자산으로 보관, 콘텐츠 제작에 활용

서울 성북구와 성북문화원이 6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2회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서랍 속 학교 이야기'이며 2010년 이전 기록물 중 성북구 관내 학교의 역사와 주민의 학창 시절 이야기가 담긴 문헌, 시청각, 박물 등의 기록물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대상은 입학식, 졸업식, 체육대회, 소풍 등 교내 행사 관련 기록물, 시험, 방학 생활, 학교 옛 모습 등 학교생활 관련 기록물,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교 주변 문구점, 서점, 분식집, 오래된 가게 등과 관련된 자료 등이다. 이외에도 성북구 내 학교의 역사를 담고 있는 자료라면 응모할 수 있다. 응모는 전자우편 또는 성북문화원 방문접수로 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성북구청 누리집 고시공고 참조). 공모전에 당선된 수상작에 대해서는 소정의 시상금을 지급하며, 공모전으로 수집한 기록물은 성북마을아카이브 누리집에 공개한 후 성북구의 기록 자산으로 보관하며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 내 학교의 역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한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영일 성북문화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성북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분들의 추억과 성북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기록들이 발굴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성동구, 올해 1호 돌봄 경력인정서 발급...경력보유여성 취업길 탄탄대로

서울 성동구가 지난 12일 올해 경력인정 프로그램 과정을 마친 1호 수강생 6명에게 수료증과 경력인정서를 수여하는 수료식을 개최했다.

구는 올해 경력인정서 발급을 위한 필수 과정인 돌봄 경력인정 프로그램을 연 2회에서 상시 운영으로 개편했다. 무급 돌봄노동 경험이 있으면 성별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일대일 인터뷰를 통한 역량 진단에서부터 관심 직무 분석, 이력서 작성 및 취창업 특강과 상담도 연계한다. 수강생이 출석률 80%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구청장 명의의 경력인정서가 발급되며 올해 첫 수료식을 개최한 것이다.

이렇게 발급된 돌봄 경력인정서는 성동문화재단,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성동미래자리 등 구 출자·출연기관과 성동구상공회 소속 기업 및 혁신기업 MYSC 등 17개 기업의 공식 채용서류로 활용되고 있다.

성동구는 지난해 돌봄 경력인정서 첫 발급 이후 현재까지 24건을 발급했으며, 올해 프로그램 확대 개편에 따라 신청 건수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력인정서 발급이 끝이 아니다. 구는 수료한 경력보유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취창업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동부여성발전센터 ▲성동광진고용복지플러스센터 총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년 창업농을 위한 스마트온실 운영 확대



성동구 경력인정 프로그램 수료 후 기관을 연계하여 기초상담부터 구직등록, 직업훈련교육, 취업 알선 등 경력보유여성들이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국적 확산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성동구는 2021년 전국 최초로 '경력보유여성등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민선 8기 출범 1년을 앞둔 현재 서울 성북구, 광진구 및 경기도와 경기도 수원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의 제·개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진성준 국회의원이 유사한 취지와 내용을 담은 '여성경제활동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를 슬기롭게 맞이하는 대안으로 성동구의

돌봄 경력인정서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력보유여성 최 모씨는 "집에서만 생활하다보니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상담을 받으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며 "경력보유여성들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프로그램을 준비해주신 구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모두를 존중하는 정책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성동구의 돌봄노동 경력인정사업을 통해 정부정책 반영 등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확산되고 인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의회



도민이 행복한 희망 경북! 경상북도의회가 만들어 갑니다.



용인특례시, '가족사랑 실천' 우수 인증기관에 뽑혔다

(사)대한민국가족지킴이, '여가문화 기반 조성' '일-여가 조화 정책' 등 성과 호평



용인특례시는 19일 (사)대한민국가족지킴이의 '가족사랑 실천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밝혔다.

(사)대한민국가족지킴이는 건강한 사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한 사회공헌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들의 여가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등을 평가해 매년 우수 인증기관을 선정한다.

시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기반으로 교통, 교육, 문화예술 등 시정 전반의 혁신적인 질적 변화를 통해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여가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함께 일과 여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는 '2023 피크닉 페스티벌(We Go Together Concert)', '어린이날 대축제', '다문화 한마당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시민들이 국적과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다채로운 축제의 장을 즐길 수 있도록 해 호평을 받았다.

'법화산 및 한송근린공원 내 맨발 산책로,

'기흥저수지 산책로 내 나뭇잎 켜터' 등 여가 활동이 중심이 되는 치유형 휴식 공간을 만들고 시민 농장을 확대하는 등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힘쓴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또 공직자들이 건강하게 여가를 즐기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하는 1박 2일', '산사 힐링 체험', '국내 문화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위해 우리 공직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세심히 신경쓰고, 여러 정책을 마련해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가족 중심의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경기도·김포시, 직행버스 투입 등 총력.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191%로 개선

경기도와 김포시, 4월 18일 특별대책 발표

경기도와 김포시가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해 직행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버스전용차로를 개통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 결과, 골드라인 혼잡도가 220%에서 191%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김포시는 지난 4월 18일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특별대책'을 발표한 이후 4월 24일부터 대체 노선인 70번 버스에 주요 역사를 경유하는 직행버스 추가 운행해 배차 간격을 현행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했다. 70번 버스는 걸포마루공원에서 출발해 걸포북역, 풍무역, 고촌역, 개화

역을 경유한 뒤 김포공항역에서 운행을 종료해 김포골드라인 대체 역할이 기대되는 노선이다.

5월 26일부터는 서울시 구간 '개화교→김포공항 입구 교차로'까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2.0km 개통에 맞춰 70C, 70D 등 2개 노선을 새롭게 각 12회씩 운행을 시작했다. 4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순차적으로 70번 노선(70A·B·C·D)을 총 56회 추가 투입했다.

그 결과, 출근 시간대 김포공항역 기준 4월 10일 김포골드라인 승차 인원 약 1만 1천200여 명 대비 6월 12일 승차 인원은 약 1만 여명으로 혼잡도가 220%에서 191%로 개선됐다. 같은 날 기준 70번(70A·B·C·D 포함) 시내버스 승차 인원은 약 400여 명에서 1천600여 명으로 1천200명 정도 증가했다.

이는 70번 버스 노선 증차로 인한 배차간격 단축(15분 → 3~6분), 고촌읍 아파트 단지에서 김포공항역까지 바로

가는 직행버스 운행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도와 김포시는 운행 노선 승차 현황을 살펴본 후 필요할 경우 풍무동 아파트 단지에서 출발하는 70E와 70F 노선을 추가하는 방안도 서울시와 협의 완료한 상황이다.

윤태완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단기 대책 추진으로 혼잡상황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더 줄이기 위해 김포시와 세부 노선 조정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화성시, 민원처리 분야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지원 공모사업 선정

화성시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지원사업' 선정 국비 2.5억원 확보

화성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민간의 첨단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지원' 2개 분야 (수요 연계형+종합지원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2.5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지원 사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혁신서비스 선도 및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민간에서 개발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 및 플랫폼을 활용·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추진된다.

시가 지원해 선정된 과제는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외부민원에 대

한 분류, 응답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현재 운영중인 민원상담 콜센터 상담업무에 적용하여 서비스 정확성과 효율성 향상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콜센터 민원상담 시 1,900여개의 상담매뉴얼 및 콜 인입 민원내용을 실시간으로 분류 및 분석하여 유사 사례에 대한 답변을 상담사에게 제공하는 민원상담업무지원 등 서비스개발을 기획 했다.

또한, 사업전담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민간기업과 3차 협약 체결을 통하여 6월 중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부문에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혁신 사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성택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공공부문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해 콜센터 내부업무 및 대민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도록 가능

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초거대 인공지능을 민원응대에 활용 시민이 신속·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광명시 하안1동 자율방재단, 양평 농가 방문해 농촌 일손 도와



광명시 하안1동 자율방재단은 19일 농번기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양평 오디 농가를 방문해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

이번 농가 일손 돕기에는 하안1동 자율방재단 대표 등 10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수확기를 맞은 오디가 적기에 출하될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리며 열

심히 작업했다.

김광익 하안1동 자율방재단 대표는 "고령화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도울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일손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일손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하안1동 자율방재단은 방역 활동을 비롯해 빗물받이 퇴적물 제거 등 호우 예찰과 수해 복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재난 재해 방지에 앞장서고 있다.

윤용민/기자

고양특례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해소를 통한 기업유치 첫 발 내디뎈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19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0개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최됐다. 고양특례시 등 10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고양특례시와 수원특례시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4차 수도권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수도권 정비계획 및 폐

러다임 전환, 수도권규제 완화를 통한 국가성장관리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연세대학교 이상훈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정계·학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권역조정, 공장총량제 등 규제 완화와 행정·재정적 권한 확대 등에 대해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 또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제안한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역차별을 받지 않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특례시 기업지원과는 지난 2월 발주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토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토론회를 추가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한영기/기자



Everywhere Green Life, H₂ KOGAS
KOGAS가 만들어가는 Fill·Feel·必

KOGAS가 FEEL합니다

더 깨끗한 세상을 위한 KOGAS의 ESG
KOGAS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행복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인천 경제를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논하다

경제 관련 유관기관과 경제 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여 시민 대토론회 개최

경제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인천의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인천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광역시와 인천연구원과 공동으로 6월 19일 송도 미추홀타워 미추홀관에서 경제 관련 유관기관 대표들과 학계·산업계·노동계 경제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경제발전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정복 시장과 시 관계자, 박호근 인천연구원 원장, 소상공인 분야 이덕재 인천상인연합회 회장, 중소기업 분야 주성훈 인컴이엔지 대표와 김재웅 우성에이스 대표, 노동 분야 이성욱 노무법인 한길 대표, 경력 단절 분야 김미애 인천여성새로일하기 센터장, 청년 분야 옥은아 인천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경제·언론 분야 하석용 흥익경제연구소 이사장과 김청우 인천일보 경제부장장을 비롯해 소상공인, 기업인, 금융기관, 학계, 청년·시민·경제단체, 공공기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여러 대외적인 요인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11일과 6월 7일 각각 1.5%로 전망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경기 둔화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실현하고, 경제 규모(명목 지역내총생산(GRDP)) 100조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인천이 당면한 경제문제를 인식하고 정부나 시 정책의 부족한 부분들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가감 없이 논의해보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인천 경제의 현황 및 과제'에 대해 발표했고, 김하은 인천사회적은행(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이사장(전 한국은행 인천본부장)은 '인천 실물 경제지표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 했

다.

이어진 종합 토론은 박호근 인천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현재 인천 경제 상황 등을 공유했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기업경영에 있어 인재 확보의 어려움을, 구직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일자리 mismatch 문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최근 수출 부진으로 인한 정부의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진작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각계 전문가들은 인천 경제의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은 박호근 인천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현재 인천 경제 상황 등을 공유했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기업경영에 있어 인재 확보의 어려움을, 구직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일자리 mismatch 문제를 토로했다. 또한, 최근 수출 부

진에 따른 정부의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과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진작 대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각계 전문가들은 인천 경제의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했다.

인천시는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경제 관련 공동 토론회 및 지역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지속 개최하는 한편, 지역 경제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당면현안들을 혁신적인 마인드로 극복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역할이자 우리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으며, 정책의 성과는 결과로 결정되는 만큼 인천 100조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챙기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수원시 권선구 평동 주민자치회, with you 탄소제로 수원과 함께하는 주민총회 개최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평동 마을

지난 17일 권선구 평동 주민자치회는 'with you 탄소제로 수원과 함께하는 2023년 주민총회'를 고석역 상부공원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주민총회는 2023년 주민자치회 주요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2024년 주민자치 활성화 8개 사업의 우선순위를 주민 투표로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8개 사업은 주민자치회 분과별 회의를 통해 구성됐으며 마을 환경 개선 사업부터 복지사업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이날 주민총회에서는 온라인 투표와

당일 현장투표 수를 합산하여 △황구지천 지역명소 만들기 △마을 정원 조성 △내 고장 역사 알리기 △황구지천 생태 정화·산책길 보전 △수인선 음악회 개최 △평동 학생자치회와 주민자치회간 MOU 결성 △행복한 노후, 평동 어르신 건강관리 교육 △탄소중립 실천 사업 등 총 8건의 사업 우선순위를 정했다.

또한 주민총회와 더불어 진행된 아주대 탄소제로에너지센터의 'with you 탄소제로 수원' 부대 행사를 통해 탄소 중립 그린도시 평동을 홍보했다. △나도 환경운동가! 환경 자유 발언 △드론! 환경골든벨 개최 △탄소제로존 내 체험부스(아나바다, 제로웨이스트 용품 만들기, 자가발전 풍선불기, 탄소중립 수원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콘텐츠로 행사장을 찾

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김양숙 평동장은 "이번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시간

이었고, 환경 보호에 동참하여 함께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해나갈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신상진 성남시장, 취임 1주년 '민생탐방 현장 토크' 나서

현장에서 시민들과 민선8기 1년 성과와 비전 공유하며 소통



신상진 성남시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민생탐방에 나섰다.

성남시는 민선8기 취임 1주년을 맞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별도 기념행사 대신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 지난 1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민생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7일 백현카페문화 특화거리 비전공감 및 제작식에 참석한 후 '골목상권 게릴라 토크'를 진행하고 상인, 시민들과 지난 1년간의 시장운영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수렴했다. 신시장은 백현카페문화 특화거리 제작식 행사에서 "특화거리 사업을 통해 찾고 싶은 거리, 공감증을 유발하는 거리, 변화되고 혁신된 거리를 만들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어 6월부터 7월까지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민과 함께 소화행, 버스정류장, 노선버스에서 '시장님, 어디가세요', 7월 초 개장하는 맨발 황토길에서 '백색건강 황토길' 등 시민과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1인1가구 헬스케어, 학교밖청소년센터 등을 방문하여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를 듣는 '혼자가 아니라, 재능재해 취약지역에서 시민과 함께 현장 둘러보는 '굿바이 재난재해'와 야외 소공연에서 시민과 함께 문화를 즐기는 '파이팅 성남 콘서트', '버스킹 공연' 등도 진행한 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취임 후 지난 1년간 시민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소통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성윤/기자

부천시,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위한 토론회 공동 개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0개 지자체 모여 대안 모색... 시대에 맞는 변화·발전 방안 논의

부천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들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및 도시성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부천시를 비롯한 수원시·고양시·광명시·구리시·성남시·안양시·의왕시·의정부시·하남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10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건네는 등 논의에 힘을 보탰다.

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 경기도 14개 지자체들의 고충과 대안 모색이 논의됐다. 지역 간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수도권 내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문제점과 노후화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패러다임 전환 및 향후 발전 방안 등도 주제로 다루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 권역보다 많이 든다. 또한 권역 내에 입지한 기업이 공장 면적을 넓히기 위



해 투자를 늘리려 해도 규제에 막혀 제약이 따른다.

반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점차 빠져나가는 기업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유

인 지자체들은 지역경제를 지탱했던 기업들이 빠져나가 일자리가 줄어들고, 세수가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들은 공장총량제, 중과세, 입지제한 등 3중 족쇄에 묶여 수도권에선 공장 증설과 신설이 지극히 어렵다"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 등 연구개발 역량과 고급인력을 갖춘 기업들이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규제에 의해 성장을 제한받지 않도록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장기적인 안목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용민/기자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놓고 도민들과 숙의(熟議)의 장 마련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속의 공론조사 권역별 토론회 개최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도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를 위해 속의 토론회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17일 경의권(고양, 김포, 파주) 속의 토론회를 시작으로 경기도 6개 권역을 순회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속의 공론조사 권역별 속의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속의 토론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여론조사에 응답한 도민 1만 명 가운데 토론회 참여 의향을 보인 도민을 성별과 연령, 지역 및 의제에 대한 태도 등 기준에 따라 1,200명을 최종 선정해 진행한다.

속의 토론회 내용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계획과 과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경기북부 비전 및 경기남부 영향 2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필요성, 비전과 발전 전략, 쟁점 이슈와 해결 과제 등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토론회가 진행되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특별자치도의 설치로 예상되는 권역별 발전 방향과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토론회의 발제자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간합동추진위원회 위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 위원, 경기연구원 연구원, 대학교수 등 지방 행정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토론회의 설계 자문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에서 맡았다. 공론화위원회는 올해 1월에 제정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조사의 운영 방식과 절차, 참여자 구성 등 추진 과정 전반의 설계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자문 기구다.

앞서 도는 지난 4월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와 공론화 전문기관인 (주)글로벌리서치, 코리아스픽스(주) 주관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참여형 속의 공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사전에 속의 토론회 참여단을 대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인지도, 관심도, 필요성 등에 대해 태도를 조사했다. 이번 속의 토론회에서 의제 학습과 참여단 간 토론을 거친 후, 동일 문항에 대해 재조사함으로써 의제에 대한 태도 변화 추이를 측정하게 된다.

속의 토론회는 6월 17일 고양(경의권 : 고양, 김포 파주)을 시작으로 6월 24일 남양주(경춘권 : 가평, 구리, 남양주), 7월 1일 수원(경부권 : 과천, 군포, 성남, 수원, 안성, 인양, 오산, 용인, 의왕), 7월 8일 화성(서해안권 : 광명, 부천, 시흥, 안산, 평택, 화성), 7월 15일 여주(동부권 : 광주, 양평, 여주, 이천, 하남), 7월 22일 양주(경원권 :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포천)지역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이번 권역별 속의 토론회에서 도출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심화된 의제를 다루는 종합토론회를 8월 중 개최할 계획이다.

진세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속의 토론회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도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란 점에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경기북부 10개 시군 대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군별 토론회와 차이가 있다"라면서 "특별자치도 설치라는 정책적 사안에 대해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계속해서 만들어 경기도민의 지혜를 모으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구분	일정	장소
1차	경의권 6월 17일 (토)	고양 일신컨벤션스 제2전시장
2차	경춘권 6월 24일 (토)	남양주 청소년수련관 다목적강당
3차	경부권 7월 1일 (토)	경기도 인재개발원 체육관(수원)
4차	서해안권 7월 8일 (토)	화성 리버리조트 볼룸 1, 2
5차	동부권 7월 15일 (토)	여주 신원리호텔 그랜드볼룸
6차	경원권 7월 22일 (토)	경기자유총합지원센터 컨벤션홀(양주)

구분	일정	장소
종합토론회	8월 26, 27일 (토, 일)	미정

주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

제1회 이천청년축제기획단 발대식 개최

이천시는 지난 18일 시청 소룡큰마당에서 제1회 이천청년축제기획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천청년축제기획단(이하 청년축제기획단, 단장 이종경)은 지난 달 공모를 통해 제1회 이천청년축제의 기획과 운영을 총괄할 단원 50명을 모집하여, 이날 6월 발대식부터 9월 해 단시까지 활동을 이어간다고 전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제1회 이천청년축제 소개 및 향후 운영 방향 안내, ▲김경희 이천시장의 격려사, ▲단원 위촉장 수여, ▲특별소통의 시간 등이 진행됐다.

청년축제기획단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축제 프로그램 개발과 구체화를 위한 회의, 공연팀·강연자·셀럽 섭외, 축제 홍보방안 논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천시 역시 청년축제기획단이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청년의 날을 맞아 개최되는 청년축제를 청년 스스로 기획, 운영,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긍심이 많이 높아질 것"이라며 "청년이 행복한 이천시를 여

러분들이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종경 청년축제기획단장은 "100% 청년이 주도하고, 청년이 만들어가는 이천 최초의 청년축제를 멋지게 만들어 보겠다"며 "청년축제라는 큰 그림을 그려갈 역량 있는 청년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2023년 제1회 이천청년축제'는 오는 8월 완공예정인 청년전용공간 청년일자리카페 e-room 및 설봉공원 인공폭포 일대에서 9월 16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성윤/기자



경상북도농업기술원, 관상수용 넓은감 신품종 '홍아람' 품종보호 등록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상주감연구소에서 육성한 관상수용 품종 '홍아람'이 재배 심사를 거쳐 최종 품종보호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홍아람은 과일 성숙기가 10월 하순이고, 250g 정도의 중대과며, 과피색이 매우 붉은 것이 특징이다.

홍아람이라는 품종명은 붉은 '홍'과 충분히 익어서 저절로 벌어진 열매를 뜻하는 순우리말 '아람'이 더해진 것으로 과실이 충분히 익었을 때 매우 붉은빛을 띠는 의미로 지어졌다.

과실의 외관 또한 토마토를 닮아 독특한 관상수용서의 이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16개팀 선발, 8월 전국대회 경북도 대표로 출전

품종 등록된 홍아람은 1998년부터 전국에서 일반 감나무 229본을 수집해 생육을 정밀 검정하고 관상수용으로 우수한 계통을 2010년 1차 선발해 접목·증식했다.

관상가치가 가장 우수한 개체를 2차 선발해 2019년까지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을 조사한 뒤 2020년 최종 품종보호 출원했다.

한편, 상주감연구소는 곱감용 품종 개발과 동시에 정원수용으로 우수한 소과종 품종인 '미려', '미향' 2품종을 육성해 소비자에게 보급하고 있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상주감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넓은감 연구기관으로 343종의 가장 많은 감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있고, 2008년부터는 '국가 감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돼 넓은감 유전자원 확보와 보존,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우량 유전자원의 품종화는 물론 교배 육종 및 배수체 육종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신품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의성군청공무원노동조합 2024년 공무원 임금인상 요구 부서 선전전 진행

보수 37만7000원 정액인상,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각각 인상,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민간수준으로 동일하게 적용 등

의성군청공무원노조는 지난 16일 의성군청 사무실을 돌며 2024년 공무원 임금인상 요구와 공무원들의 투쟁 참여를 촉구하는 부서선전전을 진행했다.

2021~2023년 실질소득 감소분과 2024년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고려해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정액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다음달 8일 서울에서 예정된 대규모 총궐기 대회 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의성군청공무원노동조합(의공노)은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 120만 공무원 노동자에게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며 지난해 공무원 임금은 1.7만 인센티브"라며 "그 결과 공무원 임금은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82% 이하까지 추락했다. 그런데도 6,360원에 점심을 때우고 노예처럼 일하라고 강요받는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보수는 2021년에는 0.9%,

2022년에는 1.4%, 2023년에는 1.7% 등 '정률'로 인상돼 왔다. 다만 물가상승률에 크게 못미쳐 실질 임금은 사실상 삭감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준태 의공노 위원장은 "물가 상승률에 턱없이 못 미치는 보수 인상에도 희생을 강요받고, 청년 공무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자존감이 무너져 한 해 1만명이 공직을 떠나고 있다."며 "더 이상 우리에게 공노비의 삶을 강요하지 마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공노는 2024년도 공무원 임금 37만7000원 정액 인상, 정액급식비 8만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산정 방식 민간수준으로 개정을 요구하며 내달 8일 서울에서 열리는 총궐기 투쟁대회에 참석해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사업을 전개해 예정이

정금자/기자

케이메디허브, 국제관으로 더 풍성해진 2회 KOAMEX

6월 30일부터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취업박람회 동시 개최해 구직자 유인

올해 KOAMEX의 주목할 점은 3가지다. 국제 전시회에 걸맞은 해외 참관, 세계적 트렌드인 디지털 의료기기 분야의 연구개발 한눈에 관람, 의료분야 인력채용 활성화 세 가지다.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KOAMEX(코아멕스, 대한민국 국제 첨단의료기기 및 의료산업전)을 대구 엑스코(EXCO) 동관에서 개최한다.

올해 2번째 개최하는 KOAMEX는 매년 대구에서 열린 메디엑스포와 동시 개최되며, 한강 이남 최대 의료산업전을

표방하는 전시회이다. 올해도 의료 관련 다양한 부대행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KOAMEX는 대구광역시와 케이메디허브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한국계약바이오협회가 후원한다.

2023년 KOAMEX 전시회는 첫째, 태국·대만·도미니카 등이 참가하는 국제관을 운영, 국제행사도 거듭한다. 국제관은 태국 타마삿 대학교, 대만 FaceHeart 기업, 도미니카 등 기존 케이메디허브와 업무협약을 맺었던 국가들이 실제 박람회에 참여하여 해외 산학연 약 60개 바이어가 참가한다. KOAMEX도 전년보다 규모상으로 더욱 풍성해지고, 국제 행사에 어울리는 행사가 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글로벌 굴지의 기업인 GE 헬스케어 초청 세미나(7월 2일(일) 13:30~ 16:00, 엑스코 동관 세미나 3실), 메드트로닉 나탈리 비라그 수석과학자가 '의료기기산업의 혁신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포럼(6월 30일(금) 10:00~12:00, 엑스코 동관 세미나 1실)을 준비 중이다.

둘째, 최근 주목받는 디지털 의료기기 특별관을 운영, 현장에서 국내 디지털헬스케어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특별관에는 케이메디허브의 지원을 받아 불면증 치료기기를 개발하고 혁신의료기기 지정까지 받은 웰트(주) 등 기업 14곳이 공동 참가한다. 디지털 의료기기의 허들이었던 인허가 문제를 케이메디허브를 통해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상담도 가능하다.

셋째, 취업박람회를 동시에 개최하여 기업들에게 인재 채용 기회를, 구직자들에게는 의료기기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케이메디허브는 기업과 지역 경제활성화의 중요한 요소인 인재채용을 위해 대구개발연구특구와 함께 취업박람회를 마련했다. 박람회와 동시 개최되는 'KOAMEX-INNO Job Fair'는 의료기업들이 참가해 인사담당부터 현장 채용까지 진행한다. 모의 면접 및 서류 검토, 면접용 메이크업 등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계획 중이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두 번째 KOAMEX 전시회의 성패에 향후 KOAMEX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전사적으로 전시회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라며 "태국이나 도미니카에서도 대한민국과 의료산업을 논의하기 위해 찾아오는 곳이 대구 케이메디허브가 된 만큼, 국내 대표 의료물류터로서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셋째, 취업박람회를 동시에 개최하여 기업들에게 인재 채용 기회를, 구직자들에게는 의료기기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케이메디허브는 기업과 지역 경제활성화의 중요한 요소인 인재채용을 위해 대구개발연구특구와 함께 취업박람회를 마련했다. 박람회와 동시 개최되는 'KOAMEX-INNO Job Fair'는 의료기업들이 참가해 인사담당부터 현장 채용까지 진행한다. 모의 면접 및 서류 검토, 면접용 메이크업 등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계획 중이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두 번째 KOAMEX 전시회의 성패에 향후 KOAMEX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전사적으로 전시회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라며 "태국이나 도미니카에서도 대한민국과 의료산업을 논의하기 위해 찾아오는 곳이 대구 케이메디허브가 된 만큼, 국내 대표 의료물류터로서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주낙영 경주시장, 간부회의 열고...SMR국가산단 중점사업 점검

주낙영 경주시장이 19일 오전 국·소·본부장회의를 주재하고 SMR국가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해 빈틈없는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SMR국가산단 단지 신규 후보지로 경주시 문무대왕면으로 선정하고, 총사업비 3966억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조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경주시는 정부의 계획에 발맞춰 신규 국가산단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착실히 밟고 있다.

최종 후보지인 경주시 문무대왕면 두산리 일원으로, 규모는 150만㎡다.

이 산단은 가칭 'SMR국가산단단지'로 명명됐으며,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단독 선정될 예정이다.

경주시는 이번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LH공사와 오는 26일 안동시 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포함해 원

희룡 국토부 장관, 이철우 경북지사, 이한준 LH공사 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를 통해 SMR국가산단 조성 과 관련한 상생협약 체결 뿐 아니라, 지역의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경주시는 국가산단 수요기업 발굴과 사업 예비타당성을 조사를 위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SMR 국가산단단지 선정으로 차세대 원자력 국가산단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과 원전기업 유치로 지역경제의 동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SMR은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도약시킬 구원투수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태용/기자

영양군, 영양라이온스클럽 창립 53주년 기념식 및 회장단 이·취임식 성황리에 마쳐

국제라이온스협회 356-E지구 영양라이온스클럽 창립 53주년 기념식 및 회장단 이·취임식을 16일 영양군민회관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지구 김세용 총재를 비롯한 오도창 군수, 김석현 군의장장관 의원, 스폰서 클럽인 안동MJF클럽회장, 지역클럽인 포항해동MJF클럽 회장, 4지역클럽(청송,예주,해송,영덕,죽변,후포,울진)회장과 관내 기관단체장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1부는 창립 53주년을 기념하여 지구총재 표창 및 치사에 이어, 축사, 감사패 전달, 장애 부모들 돈 자녀들에게 장학금 전

양수발전소 유치 캠페인 홍보 캠페인 이벤트도 가져

달(5백만원), 회원 8명에게 100% 출석상을 수상했다.

이어서 가진 이·취임식에는 이임하는 김영범 회장에게 회원들이 감사한 마음을 담은 재치기념패가 전해졌고 김 회장은 회원들이 사고 없이 한 회기를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무엇보다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했기에 가능했다며 이임인사를 했다. 이어 2023-2024회기 회장으로 취임된 이동욱 회장에게는 취임선서와 함께 클럽기와 휘장이 전수됐다.

한편, 행사를 마칠 즈음해서 양수발전소 유치 캠페인 홍보 캠페인 이벤트를 전 회원 가족들과 함께해 행사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이 회장은 "따뜻한 동행, 행복한 봉사"라는 슬로건 아래 회원증가, LCIF 기금 100%(MJF등록)달성, 또한 지역의 사각지대에서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는 곳을 찾아 미력이나마 큰 빛이 되는 영양라이온스클럽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근수/기자

대구광역시 마을기업 3곳, 우수·모두애(愛) 마을기업 선정

2023년 행안부 심사 결과 우수 2개소, 모두애(愛) 1개소 선정 우수(주)당신재단실,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림, 모두애(愛) (사)정인장애인복지회 선정기업에 제품개발, 마케팅을 위한 사업비 최대 1억 원 지원

대구광역시 마을기업인 (주)당신재단실(대표 김승유),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림(대표 강문주), (사)정인장애인복지회(대표 이선용)가 행정안전부가 최근 심사한 '2023년 우수 및 모두애(愛) 마을기업'에 선정돼 기업별 최대 1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우수 마을기업'과 '모두애(愛) 마을기업'은 행안부가 매년 지역자원 활용,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심사·선정하며 추가 사업비를 지원한다.

'우수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한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마을기업을 발굴, 모범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 서구 마을기업인 (주)당신재단실과 달서구 마을기업인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림이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최대 7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주)당신재단실은 낮은 인건비와 고령화로 쇠퇴한 서문시장 봉제업을 되살리기 위한 새로운 마케팅과 플랫폼 콘텐츠 사업 아이템 개발을 통한 매출 향상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청년들의 신선한 시각과 도전으로 침체한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림은 중증 장애인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보호시설이 없어 집에서 머무는 문제점을 느껴 마을대학교인 행복대학교설립으로 직업 체험 진행, 졸업 이후 중증 장애인



지속 보호를 위해 주간 보호 및 복지 일자리 사업 등과의 연계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모두애(愛) 마을기업'은 높은 매출과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잠재력을 보유한 '간판 마을기업'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달성군 마을기업인 (사)정인장애인복지회가 선정됐다.

(사)정인장애인복지회는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 직업 재활을 위해 해피베이커리, 카페 운영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통해 최근 3년 정신적 장애인 20명 고용 및 최근 3년 연평균 654

백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달성군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비슬참꽃빵' 및 송해 선생님 캐릭터를 통한 '장수까까' 개발, 온·오프라인 판매개척 등의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대 1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안중근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지역공동체를 위한 마을기업인들의 헌신으로 이러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며, "대구광역시는 이런 성공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마을기업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윤근수/기자



세계청소년종합스포츠축제 막바지 준비 착착! 2023대구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ICG) 준비상황보고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6월 19일 동인청사 10층 대회의실에서 김중환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2023 대구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의 대회준비 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

이날 보고회는 ICG추진단장의 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공식행사 연출 방향, 개최식 질서유지, 교통 및 주차, 안전관리 대책 등 분야별 지원을 담당한 관련 부서 및 유관 기관에서 세부 지원계획을 보고한 후, 문제해결 방안과 협조 사항 논의 등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제55회 대구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ICG, International Children's Games)는 'Enjoy it, Dream

together' 라는 슬로건 아래 7월 5일(수)부터 10일까지 6일 동안, 대구스타디움, 두류수영장, 계명대학교 등에서 육상, 수영, 태권도 등 8개 종목의 경기를 펼치는 종합스포츠대회로 이번 대회는 27개국 62개 도시 2,500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청소년 스포츠 축제이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 공식 행사장, 숙소, 경기장 등 모든 대회 장소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 이번 대회의 참가자 대부분이 청소년이고, '국가 중요행사'로 지정된 만큼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행사장별 안전요원 배치, 시설물 안전관리, 치안 및 소방, 대

러 대책에 대한 협의 등 안전사고 없는 대회로 마무리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대구시와 교육청은 지역 중학생 300여 명으로 모집한 1교 1도시 서포터즈를 참가 도시마다 배정해, 경기응원 및 개·폐회식 동행 참석 등 대회 기간 중 친분을 쌓아, 대회 이후에도 사회관계망(SNS)으로 소통하며 친분을 이어갈 수 있는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대회 기간 중 선수단과 동반가족, ICG 임원, 각 도시대표 등 외국인들을 위한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7월 6일(목) 육상진흥센터에서 3,500여 명이 참석하게 될 개막식엔[드론 공연]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한 화려한 미디어아트를 선보이며, 대회 홍보뿐 아니라 지역을 넘

어 세계로 향하는 '파워풀 대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대회전까지 공식 행사 무대 설치 및 리허설, 분야별 인력 배치와 근무요령 전달, 최종 안전점검 등으로 대회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해, 19일부터 계명대학교 선수촌 내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김중환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무더운 여름철에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식음료의 철저한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대회 참가자들이 즐기며 화합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하며 보고회를 마무리했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결혼이민자 가족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착 지원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 59명 대상 산림치유원 '숲 치유' 프로그램 제공

영주시는 19일 올해 상반기 입국한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화합의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2일 필리핀 계절근로자 99명 대상 프로그램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영주시가 진행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화합행사다.

시는 이날 국립산림치유원에서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 59명(베트남 54명, 필리핀 4명)을 대상으로 숲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잔나무 숲 해먹 체험과 통나무

명상, 수(水) 치유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청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마련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 포레스트리(Forestory) 캠프와 연계해 추진됐다.

풍기를 농가에 초청된 편반키엠 씨(베트남, 39세)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따뜻한 물에 몸을 맡기며 영농작업 피로를 털어낸 느낌이 좋은 하루였다"며 "타국 생활의 어려움을 살펴준 영주시와 국립산림치유원의 배려에 감사하

다"라고 말했다.

김덕조 농업정책과 과장은 "농가형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도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며, "농가형 계절근로자와 차별 없이 대우해 근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반기 영주지역 농촌 현장에 투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69농가에 183명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필리핀 3개 도시 124

명이 39농가에, 결혼이민자 이주여성의 본국 가족 59명이 30농가에 배치되어 현재 고용 농가와 함께 다양한 영농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고용농가와 소통의 역할을 위해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언어소통도우미를 지정 배치하고 근로조건 준수여부 등 지속적인 상시 모니터링 역할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문경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7개 액션그룹, 일산 킨텍스 '2023 메가쇼 시즌 1' 참가!!

문경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은 문경시의 특화자원 융복합을 통한 스포츠식품 메카 육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4일간 일산 메가쇼에 참가를 성황리에 마쳤다.

'메가쇼'는 2013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자 박람회로 문경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은 참여 업체 제품의 판매 및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하여 액션그룹 1·2기, 스포츠식품창업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등 총 7개 참여업체가 프리미엄 타워부스형태로 운영했다.

이번 메가쇼는 문경시 지역 농산물의 생산을 토대로 한 제품으로 약돌 흑염소 하루 한포, 문경약돌한우돼지, 오미자 와인, 문경 오미자청, 오미자 막걸리 등

의 제품을 선보이는 동시에 문경시 인구 증가 시책 및 귀농·귀촌 홍보도 동시에 진행했다.

문경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김민욱 추진단장은 "이번 일산 킨텍스 메가쇼 참여를 통해 홍보 및 판매의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여 참여업체의 수익 증대와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 창출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메가쇼 참여를 통해 문경시 농특산물 홍보를 통한 판로 확대와 소득증대 및 문경시 귀농·귀촌 정책, 인구증가 시책을 통해 농촌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촌과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덕군, 반짝반짝 보이는 초인등 지원사업 추진

청각장애인 120가구에 초인등 설치 추진 중

영덕군과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는 관내 청각장애인 120가구에 초인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초인등은 방문자가 현관벨을 누를 때 불빛으로 방문을 알려주는 장치로, 등록된 청각장애인 중 설치를 희망한 120가구에 대해 6월 한 달간 각 읍·면별로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초인등 설치사업을 위해 영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 위원들과 신중년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은 각 가정을 방문해 설치하는 물론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업체회 가족지원과장은 "초인등 설치사업이 청각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안전에 도움이 돼 호응이 좋은 만큼 연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위해 실효성 있는 복지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예천군,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강좌 활기...언제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



시간·장소 관계없이 5명 이상이라면 강사로 지원, 가족공예 등 강좌 인기

예천군이 추진 중인 '찾아가는 마을 평생교육강좌'가 주민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충족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강좌는 5명 이상의 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 강사를 정해 강좌를 신청하면 예천군이 강사료를 지원하는 학습자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이다.

군은 지난 2019년부터 평생학습 기회와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강좌'를 운영해 왔으며 지난 4년간 22개 강좌에 총 300명 이상 참여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1월 강좌 모집을 통해 총 40여 개 강좌를 신청받았으며 교육의 타당성과 중복 여부 등 검토 후 18개 강좌를 선정하고 3월부터 296명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되고 있다.

특히, △가족공예 △천아트 △보태니컬아트 등 미술·공예 분야 뿐만 아니라 △라인댄스 △아쿠아로빅 등 건강·체육 강좌는 물론 △하모니카 △바이올린 등 다양한 강좌로 주민 만족도가 높다.

이에 군은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강좌가 단순히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자기계발 장이자 나눔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지역학습공동체로 발전해 명품교육을 실현하는 평생학습 도시로 발돋움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쿠아로빅에 참여하는 한 교육생은 "인근에서 아쿠아로빅을 배우기가 쉽지 않은데 평생교육강좌를 통해 이웃과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태환 행정지원실장은 "소규모·맞춤형 강좌의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주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수준 높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2023 경산자인단오제,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축제

경산시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축제 '2023 경산자인단오제'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자인면 계정숲 일원에서 3일간 개최된다.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국가무형문화재 강릉농악, 은울탈춤, 전통무예시연, 여원무 나라사랑 댄스컬, 가후한마당 등 다양한 공연과 대하장사 씨름대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신나는 지역축제로 신라말 고려 초 왜적이 침범하자 한(韓)장군이 누이동생과 함께 꽃관을 쓰고 춤을 추며 왜구를 유인멸해 지역을 지켜낸 공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짓고 단오절에 제사를 지내고 성대하게 놀이를 즐겼던 것이 오늘날 경산자인단오제로 전승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정군을 모신 사당(진충묘)에서 제사를 지내는 한장군대제, 단오날 아침 마을의 향리를 비롯한 일행이 한장군대제를 지내러 가는 호장행렬, 한장군과 누이동생이 애책을 유인하기 위해 춘 춤인 여원무(女圓舞), 한장군대제를 지낸 후 여흥으로 벌어지는 팔광대탈춤, 한장군의 호국충정 정신을 받들고 주민들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단오굿의 다섯 마당을 주축으로 한다.

축제의 첫날인 22일은 음력 5월 5일 단오날로, 자인단오 다섯마당 문화재 공연 등과 개막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막식에는 가수 박서진이 출연해 신나는 단오제의 시작을 축하하는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둘째 날인 23일은 어린이 관객들을 위한 인형극을 시작으로 부산시무형문화재 동래학춤과 전통 줄타기, 경산시립극단과 임해지현대무용단의 공연이 이어진다. 저녁 시

간에는 팜오케스트라 공연과 고백음악회로 시민들에게 현대와 전통문화가 함께하는 다채롭고 고즈넉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국가무형문화재 강릉농악, 은울탈춤, 전통무예시연, 여원무 나라사랑 댄스컬, 가후한마당 등 다양한 공연과 대하장사 씨름대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신나는 지역축제로 신라말 고려 초 왜적이 침범하자 한(韓)장군이 누이동생과 함께 꽃관을 쓰고 춤을 추며 왜구를 유인멸해 지역을 지켜낸 공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짓고 단오절에 제사를 지내고 성대하게 놀이를 즐겼던 것이 오늘날 경산자인단오제로 전승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정군을 모신 사당(진충묘)에서 제사를 지내는 한장군대제, 단오날 아침 마을의 향리를 비롯한 일행이 한장군대제를 지내러 가는 호장행렬, 한장군과 누이동생이 애책을 유인하기 위해 춘 춤인 여원무(女圓舞), 한장군대제를 지낸 후 여흥으로 벌어지는 팔광대탈춤, 한장군의 호국충정 정신을 받들고 주민들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단오굿의 다섯 마당을 주축으로 한다.

축제의 첫날인 22일은 음력 5월 5일 단오날로, 자인단오 다섯마당 문화재 공연 등과 개막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막식에는 가수 박서진이 출연해 신나는 단오제의 시작을 축하하는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둘째 날인 23일은 어린이 관객들을 위한 인형극을 시작으로 부산시무형문화재 동래학춤과 전통 줄타기, 경산시립극단과 임해지현대무용단의 공연이 이어진다. 저녁 시

경남도,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 공모 선정!

2030년 글로벌 바이오시장 4.4조 달러(약 5,630조 원)로 바이오 경제시대 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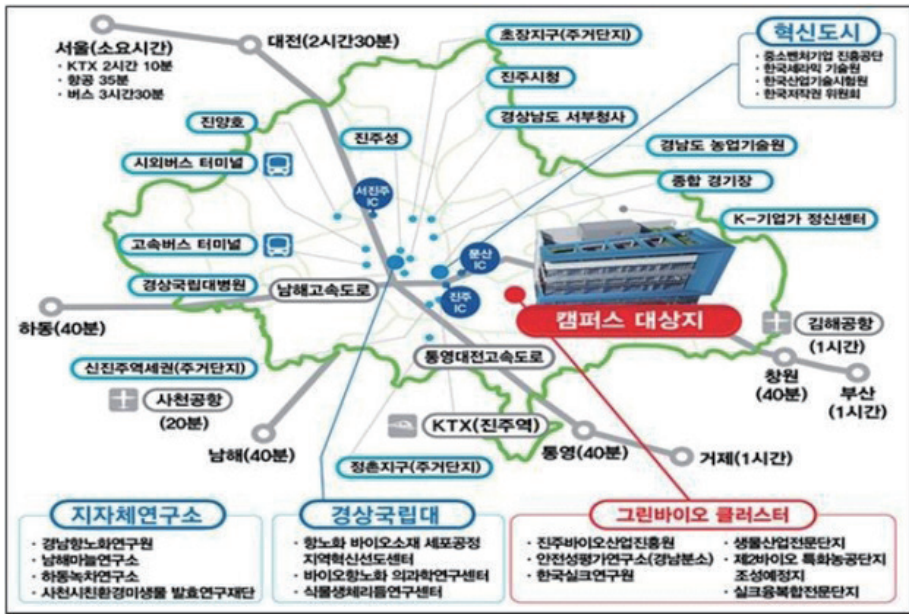
경남도는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열쇠가 될 '그린바이오 산업'육성 전략의 핵심사업인 '2023년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61억 7천만 원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선정으로 경남도는 민선8기 도정과제인 '농식품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그린바이오산업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4차산업 혁명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바이오'는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신소재 개발 등을 가능케 하는 분야로, 농업 및 전·후방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진주시농업기술센터,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경상국립대 등 산학연관 협업을 통하여 유치활동은 물론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 예비계획서 작성 및 현장발표 평가를 준비했고, 충청북도(증평군), 충청남도(예산군), 전라남도(화순군), 대전광역시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에는 우리 도 가지고 있는 지리산, 남해안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식물, 미생물, 동물 등 농생명 바이오 소재가 매우 풍부하고, 경상국립대,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경남항노화연구원 등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R&D) 역량 및 인적자원을 갖추고 있어 그린바이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점과 경남도와 진주시가 그린바이오산업을 서부경남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강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진주시와 함께 총사업비 338억 7천만 원(국비 161.7억, 도비 20.79억, 시비 156.21억)을 투입하여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에 소재하는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부지 내 11,750㎡ 규모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조성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그린바이오 산업 연구·제작용 장비·시설을 확보하여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그린바이오산업 창업보육 전문시설로서 그린바이오 산업생태계 조성, 유망 벤처 발굴, 창업보육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그린바이오 분야 유니콘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에, 경남도는 2026년 벤처 캠퍼스 조

성사업이 완료되면 도내 그린바이오 유망기업 30개사를 입주시켜 창업에서 성장까지 'One Stop 통합 지원 플랫폼' 운영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5개사 이상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입주 후 6년차 자립화 단계인 2031년에는 그린바이오 산업분야 투자 유치 200억 원 이상, 고용 1,000명 이상,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는 또한 '바이오 경제시대 도래'에 발맞춰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 중인 그린바이오 산업을 농정혁신 발전계획 과제로 선정하여 진주시를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에 2025년부터 2028년까지 1천 95억 원을 투입하여 그린바이오 특화단지 조성하여 미래농업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장재현/기자

경주시가족센터, '나는 아빠다' 프로그램 진행



경주시가 지난 주말 경주시가족센터에서 50여명의 아버지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신라역사키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체험은 아버지역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아버지 역할을 강화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오색국수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이번에는 미취학아동자녀를 대상으로 아버지와 함께 신라역사키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아버지

는 "일에 쫓겨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 부족했는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육아정도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박정우 경주시가족센터장은 "함께 키우며 함께 웃는 행복한 아빠되기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관내 많은 아버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센터에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가족센터는 특정 대상이나 계층이 아닌 모든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윤타용/기자

통영시, 한국관광공사 기자단 다님 초청 팸투어 추진

낮과 밤이 아름다운 통영 홍보

통영시는 지난 16일 ~ 17일 2일간 낮과 밤이 아름다운 통영을 홍보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기자단 10명을 초청해 통영 팸투어를 추진했다.

다님 기자단은 1박 2일 동안 통영해저터널, 미래사 편백나무 숲, 당포성지, 디피랑, 이순신공원, 동피랑, 강구안 등 통영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했으며, 액티비티 루지와 선셋오투어 등 다양한 체험과 생선구이, 반다찌, 퓨전해산물요리, 카페 등 먹거리를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팸투어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며, 전문기자단의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및 개인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아름다운 통영의 낮과 밤을 대대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취재를 해 준 다님 기자단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팸투어를 통해 통영의 낮과 밤의 모든 매력과 관광자원을 전국에 널리 알려 모든 세대가 통영을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영시는 지난해 야간관광 특화도시 1호로 선정되어 야간관광 상품개발, 야

간관광 굿즈 개발, 야간관광 홍보 글로벌 서포터즈 운영, 글로벌 OTA와 여행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통영 여행정보 구축 등

글로벌 야간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준/기자



남해탈공연박물관 국악인형극

'연희도깨비' 공연 개최

남해군 남해탈공연박물관과 연희공연 음악캠프는 오는 23일과 24일 양일간 남해탈공연박물관(이동면 남해대로 2412)에서 '2023 공연유형협력지원사업' 일환으로 '연희도깨비'를 공연한다.

인형극 '연희도깨비'는 국가무형문화재 '남사당놀이'의 '덜미(인형극)'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창작 인형극이다. 친숙한 전래동화를 각색하고 흥겨운 국악 동요 선율을 통해 관객들이 함께 몰입할 수 있는 공연이다.

관내 어린이의 관람여건 보장을 위해 23일(금) 공연은 유치원,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의 단체관람으로 진행되며, 일반 관람은 23일(금) 14:00, 24일(토) 15:00에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24일(토)에는 13:00와 17:00에 공연 전·후 워크숍 '덜미 인형 만들기'를 무료로 진행한다. 참석 희망자는 예약 시에 참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최은진 문화체육과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 인형극의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준/기자



구미시, 최근 5년간 법정감염병 동향 분석 책자 발간

감염병 감시·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관리의 일원화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올해 초 신설된 감염병관리과는 19일, 최근 5년간의 자료가 수록된 '구미시 법정감염병 동향 분석'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감염병 동향 분석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 발생 현황 및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사례별 역학조사를 통한 맞춤형(질병별, 지역별, 계절별)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함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최근 5년(18 ~ 22년)이며,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자문을 받았으며, 산출기준은 감염병별 지정된 신고범위(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 따라 신고된 건수,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다.

책자에는 법정감염병 발생현황, 다빈도 감염병 발생현황, 진드기매개감염병 발생현황, 결핵발생현황 등이 수록돼 있으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법정감염병의 신고 수는 감소추세이나 구미시는 21년까지 감소추세에서 22년 증가추세로 전환됐으며,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또한 2021년 대비 5.8% 증가했다.

또한, 대부분의 법정감염병이 감소 또는 유지 추세이나 몇몇 감염병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다빈도 감

알고 대비하는 감염병 정보 및 통계 구축

염병으로 수도 발생이 전국보다 높은 경향(전국 35.99%, 구미 43.85%)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 중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사망 1건이 발생했다.

가을철 3대 발생성 질환인 쯤쯤가무시증과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이 2021년 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지리적 특성상 진드기매개감염병의 발생률이 높아 방역·홍보활동 등의 예방관리 대책 수

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미보건소 누리집(정보마당-감염병예방안내)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정숙 감염병관리과장은 "책자 발간을 통해 법정감염병 동향 분석 통계의 지속적인 산출과 환류로 근거 기반의 감염병정책 수립에 활용

김동현/기자



달서구,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하는 달서구 나들이

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러브 인 달서' 운영



대구 달서구는 지난 16일 관내 달서 메타버스 체험관 등에서 계명문화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역사와 문화 체험을 지원하는 '러브 인 달서'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러브 인 달서'는 한국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관내 외국인주민에게 다양한 생활정보 및 한국문화에 대해 알리고, 지역 내 주요 문화 시설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계명문화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새롭게 개소한 달서 메타버스 체험관을 방문해 독도의 자연, 역사, 관광 메타버스 콘텐츠를 체험하며 한국과 독도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 지역 대표 놀이 시설인 이월드도 견학했다.

달서구는 대구에서 가장 많은 1만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러브 인 달서', '외

국인 긴급구호 지원' 등 외국인 주민을 위한 맞춤형 시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기술을 갖춘 메타버스 체험관과 우리지역 대표 놀이공간을 방문하여 유학생들의 소중한 추억이 되고 나아가 달서구와 한국을 알리는 홍보대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창원특례시, 찾아가는 '굿잡(Good-Job)버스' 첫 운영

19일 상남분수광장서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컨설팅 제공

창원특례시는 19일 상남분수광장에서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기업체 및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취업 상담 종합 서비스 '굿잡(Good-Job)버스'를 첫 운영했다고 밝혔다.

굿잡버스는 전문 직업상담사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찾아가 취업정보 탐색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에게 취업 컨설팅을 제공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창원시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3명과 경남조산업도약센터 상담사 2명 등 총 5명이 상남분수광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구직자 개개인의 연령, 경력단절 기간 등을 고려해 1대1 맞춤형 취업상담과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워크넷 구직 등록 및 이용 안내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이 워크넷을 이용해 쉽게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퍼스널 컬러 진단을 통해 면접 등 실생활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했다.

창원시 일자리센터는 창원, 마산, 진해에 한 개소씩 위치하고 있으며, 5명의 직업상담사가 근무하고 있다. 올 5월까지 4,388건의 구직상담을 통해 3,943명을 알선, 1,718명을 취업시켰다. 오는 7월부터는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집중해 창원시 중장년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앞으로 굿잡버스 등 찾아가는 일자리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현장과 직접 소통하면서 구직자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재현/기자



부산 다방'Cafe de Busan'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맛보세요!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계기 유치 홍보 일환으로 ▲ 부산홍보 팝업존 '부산다방' ▲ 파리 상징물(랜드마크) 연계 거리공연 등 추진

부산시는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 총회(6.20.~6.21.) 계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의 일환으로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 부산홍보 팝업존 '부산다방' ▲ 파리 상징물(랜드마크) 연계 거리공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부산홍보 팝업존 '부산다방' 운영

먼저, 부산홍보 팝업존인 '부산다방' 'Cafe de Busan'은 현지시각으로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운영되며, 프랑스 사틀레 레알 지역 웨스트필드 대형 쇼핑몰 앞 카페를 음식당 등 해외 한식 메뉴 주제(콘셉트)로 꾸며 선보인다. 이용객들은 이곳 내·외부에서 한국문화와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카페 입구에는 기후환경으로 오염된 쓰레기 물체(오브제)가 걸려있는 '부산 엑스포 트리'가 있는데, 이용객들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기에 걸린 쓰레기 물체(오브제)를 제거하면 카페에서 제공하는 음료와 상품(굿즈) 등을 제공한다.

또한, 부산 엑스포 트리 옆에서는 물과 이산화탄소로 자연적으로 생분해되는 친환경 풍선을 나눠주는 이벤트도 진행해 자연스럽게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부제인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카페 외벽에는 세계적인 인기와 영향력을 가진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이정재 씨, 비티에스(BTS), 아기사자가 랩핑된 포토월을 조성해 현지인들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했다.

카페 내부에서는 한국문화와 부산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한국문화(K-culture)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외국 이름을 발음 그대로 한글로 써서 카드를 만들어주는 '한글 이름 만들기 체험', 부산시 소통캐릭터인 부기 캐릭터로



만들어진 판박이를 피부에 붙여보는 '부기 타투 체험', 웹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통해 소개돼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달고나 챌린지' 등이 마련돼 파리 현지인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카페 내부에 있는 모니터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영상과 홍보대사 조수미 씨의 유치 응원 노래가 지속적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카페에서 제공되는 음료는 부산과 한국을 모티브로 '부산의 맛'을 알릴 수 있는 음료로 구성됐다. 한국 특유의 믹스커피를 기반으로 한 아이스크림인 '부산 달맞이 커피', 동백꽃 티백을 활용한 '부산

동백꽃 에이드', 그리고 '부산 미숫가루'가 주요 메뉴다.

◇ 현지기업(르노자동차) 협력망(네트워킹) 활용 유치 지지 분위기 확산

아울러, 부산 다방 카페 입구에 파리 현지 글로벌기업인 르노자동차가 친환경 하이브리드 전기차량(XM3)을 전시하고, 이 차량을 랩핑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주·부제를 간접적으로 소개한다. 이는 현지 기업과의 유치 지지 동행을 위한 특별 이벤트로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대상 유치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차량인 'XM3' 모델은 2022년 프랑스 올해의 차인 '부아튀르 드 라거스'

와 함께 스페인 올해의 차로 선정됐으며, 스웨덴 유력 자동차 전문지 '테크니켄스 바르드(TeknikensVärld)'의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HEV) 평가에서 최고 평점을 받은 바 있다.

◇ 파리 상징물(랜드마크) 연계 거리공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의 랜드마크인 트로카데로 광장, 센스강 브릿지 등에서 유치 홍보 거리공연도 진행한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매일 1회씩 진행되는 이 공연에는 국악 클래식 앙상블 '화수목' 공연팀과 현지 인플루언서인 리신(RISIN) 케이팝(K-POP) 커버댄스팀이 출연해 현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인다.

특히, '화수목' 공연팀은 프랑스와 한국의 인기곡을 편곡해 연주하며 많은 현지인으로부터 호응을 이끌었으며, '리신(RISIN)' 공연팀은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유명 케이팝(K-POP) 커버댄스를 선보여 대한민국 부산을 알리고 관람객들의 자발적인 유치 분위기를 이끌어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홍보활동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원팀'이 돼 대한민국 부산의 매력, 그리고 시민들의 뜨거운 유치 열망과 우수한 한국문화 콘텐츠를 프랑스 파리 현지인들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선보여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당위성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통해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을 매료시키겠다"라며, "아울러, 국내·외에서 선보이는 뜨거운 유치 열기와 열띤 응원 의 기운을 받아 오늘(20일) 있을 유치 경쟁국 제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서도 대한민국 부산의 지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송종진/기자

안동시, 시니어 디지털 콘서트(4-Useful) 성황리 개최

남계서원에서 탄신제례·전통문화체험·일두유적탐방 등 진행



디지털배우터 교육생 70여 명이 참석한 시니어 디지털 콘서트가 6월 15일 안동 모디684 문화홀(구 안동역)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디지털배우터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 경상북도 사업자인 경북대학교와 SLI, 안동시의 후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익한(Useful) 프로그램 4가지를 선정해 구글 AI 학습, 키오스크 및 VR 체험, 치매예방 게임, 디지털 연주하기 등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을 진행하고 개인정보보호 홍보 캠페인도 함께 열렸다.

특히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악기 연주 매력이 끝날 때마다 참석자들의 감동 어린 박수를 받았다.

이번 디지털 콘서트를 통해 시니어 세대의 디지털 역량을 향상하고 젊은 세대와 공감·소통의 영역을 넓힐 수 있었다. 아울러

안동지역 디지털배우터 시니어 강사들이 주체가 되어 시니어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된 점은 시민들로부터 높은 평가와 호응을 받았다.

안동시는 디지털배우터 5개소, 체험존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에듀카를 이용한 방문교육 등을 실시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안동시장은 "누구나 쉽게 디지털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울진군청 사격실업팀, 2023년 상반기 승승장구

울진군청 사격실업팀이 2023년 상반기 전국대회 등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

지난 '제5회 창원시장배 전국사격대회'에서 여자 일반부 10m 공기소총 단체 1위(권은지, 장정인, 류나영, 모수정), '제16회 대통령경호처장기 전국사격대회' 여자 일반부 10m 공기소총 단체 3위, '2023 한국산업연맹회장배' 여자 일반부 10m 공기소총 단체 3위, '2023 춘천시장배 전국사격대회' 여자 일반부 10m 공기소총 단체 1위, 개인 3위(장정인), '제3회 홍원도장군배 사격대회' 여자 주니어 공기권총 개인 1위(이수민), 2위(심예림), 여자 주니어 공기소총 개인 2위(장정인), 3위(권은지), 여자 시니어 공기소총 개인 3위(류나영)를 차지하는 등 연이어 좋은 성적을 거두며 울진군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또한, 울진군청 사격실업팀은 대한체육회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750만 원을 확보해 2년 연속 대한체육회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이 사업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지방체육회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한체육회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사업 선정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계획, 인건비 문화 조성 노력, 선수단 운영 실적, 사회 공헌 노력 등 4개 영역 13개 항목 모든 분야를 평가하여 선정한다. 울진군은 이번 지원금을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국외 전지훈련, 훈련용품 구입 비용 등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군청 사격실업팀 직장운동경기부가 연이어 좋은 성과를 거두어 기쁘다"며 "울진군을 빛낸 선수들이 훈련에 불편함이 없도록 여건 개선에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울진군청 사격실업팀은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창원에서 열리는 2023 한화회장배 전국사격대회에 출전한다.

장문화/기자



봉화교육지원청, 봉화녹색어머니연합회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안전을 위해 주위를 살펴요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은 2023년 6월 20일 봉화녹색어머니연합회, 춘양초등학교 교직원과 함께 춘양초등학교 교문에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교통안전 지도 및 안전수칙 홍보를 통하여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됐다. 학생들에게는 안전보행을 지도하고, 운전자들에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금지 및 신호기 미설치 횡단보도 앞 시정지 등 교통법규 준수를 안내했다. 특히 보행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보행 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안내하고, 교통안전 문구가 적힌 물품을 배부하여 학

생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욱 안전한 등하굣길이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캠페인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했다.

윤근수/기자



전북도, 국내 최초 메타버스 오프라인 체험공간,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개관

실감 디지털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메타버스 오프라인 체험관인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이 문을 열었다.

전북도는 19일 부안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도의회, 부안군, 새만금캠버리조직위원회 및 유관기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9년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캠버리' 참가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콘텐츠 기술 홍보를 위한 전시.체험관 조성을 목적으로 과기정통부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후, 캠버리 개최 부지 인근인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안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사업비 213억 원(국비 97억, 도비 81.2억, 군비 34.8억)을 들여 조성됐다.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은 메타버스 기술관, 메타버스라이프관, 가상세계홀 등 총 3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됐다.

1층 메타버스라이프관은 메타버스로 변화하게 될 미래 생활을 미리 체험

디지털 콘텐츠 기술을 활용한 전시 체험시설 구축



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가상세계 기술이 적용된 시뮬레이터 등을 활용했으며, 2층 메타버스기술관은 가상융합기술의

기술 원리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래픽·영상·실물전시·작동모형 등으로 구성됐다.

1, 2층을 연결해 구성한 가상세계홀은 높이 12m, 지름 18m의 국내 최대 규모의 원통형 미디어아트 공간으로 기술과 예술이 접목된 콘텐츠를 통해 관람객과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출했다.

체험관은 캠버리 기간 동안에는 대회 체험프로그램의 하나로 운영돼 150여개 국가의 4만 3000여명의 참가자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콘텐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캠버리 이후에는 학교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일반인 관람 등 체험공간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를 직접 체험하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도내 기업들이 개발한 콘텐츠를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기업이 소비자와 직접 접촉해 소비자의 반응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관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순천기적의도서관 27기 어린이사서, 진해기적의도서관 탐방

기적의도서관 20주년 기념 1·2·3호관 교류 일환으로 추진

지난 17일, 순천기적의도서관 27기 어린이사서 23명이 진해기적의도서관을 방문해 진해 어린이들을 만났다.

이번 탐방은 진해의 명소인 진해해양공원과 솔라타워를 방문하여 책 속에서 배운 지식과 장소를 눈으로 확인하며 견문을 넓혔으며, 진해기적의도서관을 방문해 진해 어린이들과 만나 게임과 놀이를 통해 교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어린이사서'는 2004년에 시작해 현재 27기가 운영되고 있는 순천기적의도서관의 명실상부한 대표 어린이 프로그램이다. 어렸을 때부터 책과 도서관을 가깝게 하는 게 목적인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800명 이상의 어린이사서를 배출했다.

이번 탐방은 기적의도서관 개관 20주

년을 맞아 1호관(순천)·2호관(제천)·3호관(진해) 교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3일에는 제천기적의도서관 어린이들이 순천기적의도서관과 순천만국가정원을 방문하여 순천 어린이들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외에도 시는 3개관에서 온라인 송출을 통해 동시 진행되는 '도서관에서 하룻밤 자기', 17개 기적의도서관이 모두 참여하는 '비경쟁 독서토론' 등 다양한 2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 중이다.

순천기적의도서관 관계자는 "책 속 세상만이 전부가 아닌, 다양한 경험을 하고 견문을 넓히는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창조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기적의도서관이 할 일"이라고 전했다.

이승준/기자



남원시, 학교밖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남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미래산업정책발전회&탄소중립수소경제운동본부



남원시가 (사)기독교청소년협회(CYA)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남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사)미래산업정책발전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의 일환으로 검정고시 멘토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지원하며, 상호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등 지역의 청소년

들에게 효율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지원, 일자리 창출 등 복지 향상을 위해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의 교육을 지원하고자 이번 8월 10일에는 제2회 검정고시에 대비하여 하반기 검정고시 대비반은 과목별 전문 멘토와 온라인 수업방식을 채택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일신 센터장은 "양 기관이 긴밀한 업무 체계를 마련하여 전문성과 다양성을 두루 갖춘 양질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쌓아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남출/기자



나주시, 고향사랑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 7월 14일까지 접수

취약계층 지원, 주민 복리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

전라남도 나주시가 고향사랑기금 활용처 발굴에 나선다.

기부자들이 공감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금 활용 방안을 두고 전 국민 아이디어를 수집한다.

나주시는 오는 7월 14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19일 밝혔다. 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자원봉사·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다.

응모는 전 국민 누구나 시청 누리집, 이메일, 우편(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정책홍보실 고향사랑팀) 등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창의성, 공공성, 지역성, 능률성 등을 평가해 고향사랑기금운영심의회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우수상(1명)은 50만원, 우수상(1명)

30만원, 장려상(2명)은 10만원의 시상금이 나주시사랑상품권으로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8월 중 시청 누리집 게시 및 개별 통보된다.

나주시 고향사랑팀 관계자는 "전 국민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는 소관 부서로 배치돼 내년부터 고향사랑기금사업으로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며 "내 고향, 부모의 고향, 제2의 고향 나주를 향한 기부자들의 선한 나눔이 기쁨과 보람이 되도록 사용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기부자)이 주소지 이외 지역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기부를 받은 지역에서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고향사랑e를 누리집 접속 또는 농협을 방문해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 총액의 30%한도 내에서 나주시 답례품 30종을 선택해 받아볼 수 있다.

이승준/기자

함평군, 폭염 대비 축사환풍기 지원 나서

사업비 1억 7,500만원 투입...한우 사육농가 대상



전남 함평군이 축사 내 여름철 고온 피해 예방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축사환풍기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이번 축사환풍기 지원사업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 한우 사육 농가 지원 차원에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HACCP, 깨끗한 축산농장, 무항생제, 녹색축산 등을 인증한 한우 사육 농가이며, 지원규모는 총 500대(군비 50%, 자부담 50%)이다.

앞서 지난 5월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았으

며,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을 지원 받은 농가를 제외한 28농가에 사업비 1억 7,500만원을 확정했다.

군은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 전인 이달 말까지 한우 사육 농가에 축사환풍기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상의 함평군은 "올 여름 지극히 난화로 가축들도 축사 내 고온에 노출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고온 대비 가축 관리 요령을 수시로 농가에 전파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목포 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할인행사 실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해양수산부와 함께하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방법

- 행사 참여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 영수증 수령 후 구매점포에서 확인도장 받기
- 확인 영수증 지참하여 운영부스 방문, 환급

행사기간	환급기준	유의사항
6. 22(목) ~ 25(일)	67,000원 이상 구매시 20,000원 34,000원 이상 구매시 10,000원	대상품목: 국내산/생선/조식/조식용, '농산물' 관련 온누리 상품권 2023년 6월 22일 00:00 이후부터 2023년 6월 25일 23:59:59까지 환급기간: 6월 22일 ~ 25일

목포시 전통시장이 국내산 수산물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는 해양수산부 주관의 국내산 수산물 소비 진작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목포시에서는 자유시장, 청호시장, 동부시장이 선정되어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된다.

행사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수산물 판매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시장 내 환급 부스에서 영수증을 확인하고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종배/기자

환급액은 구매금액 구간별로 ▲6만7천원 이상은 2만원 ▲3만4천원 이상~6만7천원 미만은 1만원이 각각 환급된다.

이번 행사는 전국 39개 전통시장에서 동시 진행되며 전남에서는 4개시장(목포 자유시장, 청호시장, 동부시장, 여수 수산시장)이 선정됐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할인행사에 대해 "질 좋은 국내산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 수산물 종사자와 전통시장 상인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NAJU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

- 기간: 2023. 6. 16.(금) ~ 2023. 7. 14.(금) [29일간]
- 대상: 전 국민 누구나
- 주제: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사업 아이디어 제안
 - 고향사랑기금 활용가능 분야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응모방법: 나주시 누리집(나주시 누리집) 참여방법 > 기금사업 제안 및,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 이메일: kang7769@korea.kr
 - 우 편: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나주시청 정책홍보실 고향사랑팀
- 모 상: 나주시사랑상품권(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10만원)
- 문의: 정책홍보실 고향사랑팀(☎ 061-339-8141-3)

강진군 강진읍 얼굴, 영광로 바뀐다!...지역 명소 변신

올 가을 '강진읍 매프로젝트'로 화단, 조형물, 간이쉼터 조성

강진군은 '강진읍 매프로젝트'의 시범사업 대상지로 영광로 일대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올해 가을까지 기존 목재 화분이 있는 영광로에 야간 조명을 포함한 성벽 화단을 배치하고 터미널 부근 조형물 리모델링 해 간이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강진읍 매프로젝트'는 강진읍 시가지 일대 도시미관 저해 요소를 찾아 개선해, 아름답고 쾌적한 강진읍을 만드는 경관 개선 사업이다.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영광로는 강진읍의 중심지로, 탐진로, 중앙로 등 주요 도로와 연결돼 도시의 중앙 축 역할을 하며 유동 인구가 많다.

특히, 강진버스터미널이 자리해 있어 관광객에게 강진의 첫인상을 남기는 중요한 공간이다.

앞으로 영광로 일대는 ▲터미널 입구 옆 기존 조형물 리모델링 ▲메가커피 앞 교통섬 내

간이쉼터 조성 ▲영광로 보도 옆 배치된 기존 화분 교체 후 성벽 화단 설치 ▲택시 승강장 옆 성벽 화단 설치 등 총 47가지 사업이 추진된다.

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화분이 위치한 구간만 실시할 예정이고 터미널 입구 부근에 조성될 조형물 및 성벽 화단 또한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높이와 면적으로 설치해, 안전사고와 군민 불편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7월 말까지 완료하고, 전라남도 계약 심사 등 차후 절차를 이행 후 올 가을, 시행될 예정이다.

강진읍 군수는 "강진읍의 중심지인 강진읍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조성해,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강진읍 매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관광객 5만 명 유치의 시작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과 군민들의 미소"라고 강조했다.

추윤호기자



장흥군, 재향 향우 '고향사랑기부' 물결 이어져

재경 장흥군향우 7명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재경 장흥군향우회원들이 연이어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고 나섰다.

19일 국회의원사당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는 오명준, 김정전 전 재경향우회 백희선, 이대식, 김도훈, 이종대, 백황선 향우가 참석했다.

향우들은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와 함께 장흥군 발전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기부식에는 장흥군 출신 김경협, 백혜련, 위성근, 문진석, 김승남 국회의원이 함께 자리해 향우들을 격려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오명준 전 재경장흥군향우회장은 평소 고향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고 향우들의 친목과 화합에 힘써왔다.

오명준 회장은 "고향 장흥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하게

되었으며, 모든 향우들이 고향사랑기부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성 장흥군수는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고, 응원을 해주신 재경장흥군향우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고향사랑 마음으로 기부해 주신 향우회원들의 기부금은 더 살기 좋은 장흥을 만들기 위해 소중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인 최대 500만원까지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담뱃값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장흥군은 담뱃값으로 특산품 368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장흥몰 모바일 쿠폰, 정남진장흥 사랑상품권, 장흥명품귀족카드, 우드랜드 숙박 이용 할인권, 수문 블루투어 오디오캠핑장 할인권, 주택화재안전구미 등을 마련하고 있다.

박재원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흑산공항조기 착공 위해 행정절차 빠르게 완료"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9일 "1천25개의 보석 같은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의 현안인 흑산공항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빠르게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신안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신안 도민과의 대화'에서 "흑산공항 개항과 다이아몬드 제도의 연륙·연도교가 완성되면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관광산업 분야에서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도민과의 대화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박우량 신안군수와 김혁성 신안군의회 의장, 김문수·최미숙 전남도의원, 박연호 신안소방서장 등 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박우량 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전남도에서 많은 국비를 확보하면서 신안도 역대 최대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문화예술이 꽃피는 섬 등 4개 방향으로 군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도민과의 대화가 지역 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의견이 모이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지도읍 주민의 정원 향유와 관광력 유지를 위해 라일락정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지사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 요청인 만큼 재정지원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도정소개에서 "잘 살고 풍요로운 신안을 만들기 위해 어촌신활력사업,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갯벌에 대한 복원사업으로 해양생태계를 회복하고, 신안의 자랑인 명품 천일염의 유통·판매 확대를 위해 산지거점·유통·연구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햇빛과 바람 등 풍부한 자연 자원



을 갖춘 신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되면 450여 개의 기업 유치와 연관산업 육성, 12만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서남권 경제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전국 최초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공유제인 햇빛연금·바람연금으로 주민들의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도 1무지엄'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역사문화자원 연계와 평화의 숲 조성 등을 통해 신안을 해양생태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다문화플랫폼,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지오국제문화관광단지 조성 등을 통해 활기차고 살기 좋은 신안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신안군민들은 장산면 대성상성 주변 탐방로 신설·정비, 하의면 국도 2호선 위험구간 개선, 신안소방서 중도 119지역대 신설, 지방도 825호선 도로 포장, 신안천일염 지리적표시제 등록 등을 건의했다.

특히 이철순 천일염산업연합회장은 "천일염의 가격이 13만5천 원까지 된다는 이야기가 들었다"며 "생산자 입장에서는 7월부터 본격적인 햇소금을 출하해야 하는데 가격이 너무 떨어져 수입산 대체 등이 이뤄질까 걱정된다. 전남도에서 대책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탐방로 정비사업의 경우 신안군의 복원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지

원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하의면 위험도로 개선 대상지가 국토부 기본계획 반영 후 조속히 추진되도록 의사진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도 825호선의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119지역대 신설은 향후 소방수요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김 지사는 "지리적 표시에 대한 법령해석을 다시 확인하겠다"며 "천일염 가격이 13만5천 원까지 올라간 것은 문제가 있다. 유통단계를 단속할 수 있는 방안, 직접 소비자에게 연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완도해경,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 동참해

사랑 나눔 실천으로 헌혈 문화 확산·사회적 책임 실현에 앞장서

완도해양경찰서장은 지난 16일 경찰서와 전용부두에서 단체 헌혈을 통해 따뜻한 생명 나눔 문화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헌혈 가능 인구 감소 및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혈액수급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사랑의 헌혈' 행사에 동참했다.

이 날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헌혈버스가 찾아오는 방식으로, 완도해양경찰서는 매

년 주기적으로 '사랑의 헌혈 행사'에 참여해 헌혈 문화 확산과 사회적 책임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체헌혈을 통해 혈액 수급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완도해경은 헌혈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양영율/기자



진도경찰서, 진도초교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진도경찰서는 6월 14일 진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교육청·진도초 교직원 및 녹색어머니회원 30여 명과 함께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진도경찰은 1234 교통안전익속(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속도 준수 및 불법 주·정차 금지, 학생들의 등교 시간대 학부모들에게 안전한 승·하차 및 우회전 통행방법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최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학교 주변 어린이 통학로에 설치된 안전펜스를 점검하는 등 어린이

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관심과 주의를 기울였다.

한편, 진도경찰과 진도초·녹색어머니회는 "반복적 발생하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 학부모들의 걱정이 없어 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화순군, 능주 들판에서 풍년 기원 '능주 들소리' 민속공연



화순군은 6월 17일 10시부터 13시까지 능주 들소리보존회원과 지역 주민, 관광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능주면 소재지 일원과 능주

들판·능주 역사관에서 대동 한마당으로 풍년 기원 '능주 들소리' 민속공연을 펼쳤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구북구 화순군수는 "지금까지 '능주 들소리'의 맥이 끊기지 않게 보존회를 이끌어 보전·전승에 힘써 주신 보존회 회원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직접 행사를 준비한 주민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군에서도 최대한 지원하여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 담긴 귀한 무형 문화유산으로 후대에 잘 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가족과 함께 광주시에서 왔다는 한 관광객은 "기계가 농사를 짓는 시대에 직접 모내기 하는 장면을 아이들에게 보여 줄 수 있어서 좋았다"라며, 아이들과 함께 농약대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다.

10시부터 능주면 마을 깃발을 앞세운 능주

농약대가 능주면 복지회관을 출발하면 면 소재지를 길놀이 할 때는 거리로 나온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

모내기 공연은 능주농협 로컬푸드 옆 논에서는 고사 후 주민들이 직접 모를 심으면서 흥겨운 모내기 상사 소리와 함께 공연을 펼쳤다. 특히 이날은 나주 동강 봉주 들노래보존회가 참가하여 나주지역의 들노래를 찬조 공연하면서, 영산강 유역 평야 지대의 들소리를 매개로 보존회끼리 서로 연대하는 유의미한 모습을 선보였다.

한편 능주 들소리는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제 65호로 지정되어 화순을 대표하는 무형유산이다. 특히 능주 들소리는 지난해 전남 민속예술 축제에서 화순군 대표로 참가하여 대상을 받았고, 2024년 전국민속예술축제에 전라남도 대표로 출전권을 획득하여 무형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은 종목이다.

윤경호기자

박경귀아산시장 "안전하고 차질 없는 용수공급 적극 협조" 당부

19일, 한국수자원공사 천안권지사 방문...용수 확보 공동전략 모색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19일 한국수자원공사 천안권지사를 방문해 용수공급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 시설을 견학했다.

이번 방문은 아산시 대규모 개발 사업지에 충분한 용수를 공급하고, 대규모 수질 사고에 아산시와 천안권지사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근 지사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정수장 현황 및 용수공급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박경귀 시장은 "아산은 둔포면 일원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충남도 추진 경제자유구역과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등 각종 대규모 사업이 계획돼 있어 어느 때보다 도시 발전에 필요한 공급용수와 주기 단지를 공급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특히 "아산시는 전체 수돗물의 70%를 천안권지사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며 "각종 개발사업에 맞게 다각적인 방안으로 충분한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상급 기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장은 "아산시의 도시 발전과 변화가 눈부시다"며 "아산정수장과 같이 아산시 의견을 수렴해 분사에 건의하는 등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중앙제어실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천안정수장 용수공급 처리 절차, 여과시스템 등 운영 절차를 안내받은 박 시장은 "전국적으로 수질 사고가 간간히 발생하고 있는데 아산시민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물 사용을 위해 유출 유입과 적수 발생 등 수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장은 "천안권지사는 수질관리를 위한 위생관리사업을 추진 중이며, 중부권 최초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2024년 하반기부터 운영에 이전보다 더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깨끗한 수돗물이 아산시민에게 공급되는 전 과정에 아산시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정수지(2, 3단계), 여과지(미세한 불순물을 걸러내는 곳)를 차례로 견학한 뒤 천안권지사 직원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김원호/기자



강원특별자치도 필수의료 지원 협의회 '첫 회의' 개최

도내 의료인력 확충 및 의료기관 역량 강화 방안 논의

2023. 6. 19 강원특별자치도 2청사 중 회의실에서는 도내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필수의료 지원 협의회 1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강원특별자치도 지사와 대학병원장과의 간담회 시 의료기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 정책 반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 필수의료 지원 협의회'의 '첫 회의'이다.

본 협의회는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2023.1.31.)'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023.2.22.)' 발표 등 향후 정부 의료대책 추진에 대한 협력대응과 도내 의료인력 난 타개를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보건체육국장, 강원도의사회장, 강원대학교병원장,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장,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기획조정실장,

강릉아산병원장, 원주의료원장, 강릉의료원장,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등 협의회 임원 10명이 참석하여 의료인력 확충방안을 주요 주제로 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지원사업 및 의료인 확보와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연구과제에 따라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 필수의료 지원 협의회'의 '첫 회의'이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의료인의 지역 의료기관 정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나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원스톱(ONE-STOP)창구를 마련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중앙부처의 정책에 대응해 나가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충남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 '본격 시동'

김태흠 지사, "탄소중립경제로 10경 수준 세계시장 선점할 것"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5개 시도의 염원이 담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19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장동혁(보령·서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9개 시도 총 35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동참한 메어등급 제정안으로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앞서 도는 올해 초부터 장 의원과 긴밀히 공조해 특별법 체계 수립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했으며,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방안을 수립해 특별법에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및 폐지지역 유치, 대체산업 육성, 규제자유특구 특례, 지역주민 우선 고용 및 지역

기업 우대, 교부세 지원 및 조세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등을 담았다.

김태흠 지사는 "특별법은 폐지지역 지원 뿐만 아니라 세계 탄소중립 전환 시장으로 가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충남은 탄소중립경제로 기치로 10경 수준에 달하는 세계시장 선점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총 58기 중 절반인 29기는 보령, 당진 등 충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에 2기가 위치해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발전량의 34.2%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원이지만, 기후위기 등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폐지하는 추세다.

정부는 앞서 2019년 11월 1일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관련, 유럽연합(EU)은 2020년 1월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EGDIP)을 확정하고, 폐지지역 등에 2030년까지 1000억 유로(약 134조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보다 앞서 폐지지역지원법을 제정한 독일은 2038년까지 400억 유로(약 53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사회 전환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운용 중이다.

유재홍 산업경제실장은 이날 도의회 정례회 보고에서 "폐지지역 5개 시도 및 산하 시군과 정책간담회 개최, 공동결의문 채택 등을 통해 적극적인 공동대응체계를 갖춰 왔다"면서 "연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와 공조 및 여론조성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정근/기자



충북도 민선 8기 1년만에 투자유치 33조원 달성, 2차년도 지역균형발전 및 신산업 유치에 전력 집중

2023년 6월 19일 민선 8기 투자유치 60조 원 달성을 위한 2차 년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충북도는 민선 8기 투자유치 60조 원 목표의 55%인 33조 원을 2023년 6월 말 달성 할 계획이며, 지난 1년간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 핵심 앵커기업인 SK하이닉스(주), (주) LG에너지솔루션, (주)셀트리온 제약 등을 유치하여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충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으



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번 발표한 2차 년도 투자유치 전략은 대기업 등 첨단 우수기업에 집중한 투자유치 전략에서 저발전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확대, 전략산업별 클러스터에 대한 기업 투자 집적화, 벤처 및 소프트웨어 미래 신산업(수소, 도심항공교통, 식품, 문화콘텐츠)분야 기업 유치

2차 년도 지역균형발전 투자유치 및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 집중

등 기존 전략에 추가 및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도내 산업단지기반과 기업체가 집중된 중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반이 열악한 저발전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저발전지역에

문화콘텐츠 등의 기업도 유치할 계획으로 2026년까지 신규 벤처임대공간을 조성하고 민간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벤처소프트웨어기업의 투자 인프라도 적극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신산업분야 앵커기업도 함께 유치를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별 연관기업 유치를 강화하여 기업투자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2024년에는 국가경제성장을 위한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입지 확보를 포함한 충청북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등 충북경제 GRDP 100조 원 시대 도약을 위하여 민선 8기 투자유치 60조 원 달성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충북도 김영환 도지사는 "민선8기 1년인 6월 말 투자유치 33조원이 넘는 것이며, 이는 도정 역사상 최단기간 투자유치 달성하는 것이다"라며 "앞으로 '민선 8기 2차 년도는 투자유치 지역균형발전과 충북을 새롭게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확보에 주력할 계획으로 경제위기 극복과 민선8기 60조원 달성을 위해 충청북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한국의 미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안동

안동! 유네스코 세계유산 3대 카테고리 보유 최초 도시

- 2010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마을'
- 2015년 10월 세계기록유산 한국의 '유교책판'
- 2018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산지승원 '봉정사'
- 2019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도산서원'
- 2019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병산서원'
- 2022년 11월 인류무형문화유산 한국의 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지방시대를 여는 새로운 도약 “제2회 경북예술경영아카데미” 개최

경북도와 경북문화재단은 4차산업·디지털·메타버스시대에 경북문화예술의 숨은 가치를 확산하고, K-culture를 선도할 도내 예술인과 경영인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제2기 「경북예술경영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지난 13일 구운철 경북문화재단 대표의 개강 특강 『경북에서 글로벌 성공경영』을 시작으로 이번 경북예술경영아카데미에서는 총 16개의 강의가 열리게 된다.

제2기 아카데미는 기업경영과 문화예술, 디지털을 다루며 사전에 참가를 희망한 경북도의 경영인, 예술인, 공

예술인과 경영인의 지적 소양 함양, 교류의 장 열어

작자 등 각계 전문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문화정책·예술, 경제·경영, 역사·인문 등 분야별 명사와 전문가 초청 강연 및 교류활동이 이뤄진다.

정중섭 한국국학진흥원장, 최재봉 성공관대 교수 등 전·현직 장관급부터 디지털 신지식 분야 최고 전문가 등 제2기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진 20인으로 구성됐다.

20일 입학식을 포함해 11월 14일까지 매주 화요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강의를 진행되며 경주, 포항, 영주,

상주 등 각 지역을 탐방하고 상호 교류의 장이 될 현장 체험학습도 이루어진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아카데미 개최에 지역 예술인과 경영인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어 감사하다”라며 “문화와 예술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표가 되는 만큼 아카데미를 통해 경북도의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전문인으로서 시야의 폭을 더욱 넓혀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총력

청송군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19일, 군청 미래도약실에서 윤경희 청송군수 및 실과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청송군의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이 함께 숨쉬는 힐링도시, 청송’이라는 비전 아래 ▲청송특화형 청년회귀 지원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치유형 가족 위케이션 활성화, 세가지 타이틀을 주제로 청송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됐다.

윤경희 군수, “누구나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청송군 미래를 위해 기금 확보 최선”

또한, 그동안 논의된 투자계획의 방향과 전략, 발굴된 기금사업과 사업간 연계방안 등 작성된 투자계획 전반사항에 대한 최종검토가 이루어졌다.

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업의 타당성, 효과·효율성을 중심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투자계획을 작성, 이달 말 제출할 예정이다. 제출된 투자계획은 서면검토, 현장방문, 대면평가, 종합평가를

통해 기초기금심의위원회에서 오는 10월 최종 의결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차별화된 사업전략을 수립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며, “누구나 살기 좋고, 누구나 살고 싶은 청송군의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기금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향토음식 활성화 교육 추진

의성 향토음식의 생활화

의성군은 향토음식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6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관내 외식업체 20곳을 대상으로 '향



토음식 활성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토음식은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조리법으로 만든 지역 전통 음식으로 우리음식연구회가 꾸준히 발굴하고 개발한 레시피를 토대로 외식업 메뉴로 새롭게 응용해 실생활에 전파 하고자 교육을 추진했다.

교육은 매주 목요일 총 4회차로 진행되며 흑마늘 표고탕수, 가지 강장, 진미채 마늘장아찌, 마늘종잡채 등 의성농산물을 활용하여 특색이 넘치면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들로 구성해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우리의 전통 식문화를 발굴하고 계승하여 의성의 우수한 농산물 홍보와 소비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산격대교「저비용 고효율 도로개선사업」시행으로 혼잡 개선

산격대교 교통혼잡에 대한 교통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사업 시행
산격대교 차로 추가 확장 완료(3→4차로 확장)
차량 대기행렬 길이 40%(630m→380m)감소, 통행시간 11분→6분 개선 효과

대구광역시는 간선도로의 원활한 이동 기능 확보를 위해 상습적인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산격대교 구간에 '저비용 고효율 도로개선사업'을 6월 7일(수)에 완료했다.

호국로상의 산격대교 주변은 도심과 4차순환도로 및 인근 주거지역(동·서변, 연경, 도남 지구)을 연결하는 관내 주요 간선 도로이며, 최근 4차순환도로 개통 및 주변 지역 개발 (연경·도남지구)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출·퇴근 시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산격대교는 지금까지 3개 차로로 운영되어, 유통단지방면 직진차량과 신천동로 방면 우회전 차량의 교통량 집중으로 인해 상습적인 교통혼잡이 발생해 차량 대기행렬이 서번지하차도 인근 약 630m까지 발생했고, 특히 출·퇴근 시 교차로를 통과하는 시간이 평균 11분 정도 소요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시민들 통행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12월에 해당구간의 도로 개선대책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해 올해 2월부터 혼잡개선 공사를 착공하여 6월 7일(수)에 완료했다. 공사는 유통단지 방면 직진 2개차로를 3개차로로 확장하고, 유통단지 방면 직진 차량과 신천동로 방면의 우회전 차량을 완전

<산격대교 차량대기행렬 사진>



<개선 전>

<개선 후>

히 분리해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격대교는 현재 지형여건상 금호강을 횡단하는 교량으로 도로용량 증대를 위해 교량 확장, 우회 교량 건설이 필요하지만 시 재정 및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담이 있어, 대구시는 도심 끝에 산격대교상의 설치된 노후도로시설물(방호벽) 개량, 길 어깨 조정, 차로 다이어트 를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1개 차로를 확보하는 '저비용 고효율 교통개선사업'을 시행했다.

개선공사 완료 후 교통모니터링 결과, 산격대교상의 차량 대기행렬이 약 40% 정도 개선 됐고, 차량 대기행렬의 길이가 250m(630m→380m) 감소하고, 개선 구간 교차로 통과시간도 5분 정도 개선돼

산격대교 이동차량의 이동성 및 주변 도로와의 접근성이 향상됐다.

대구시는 산격대교와 연결되는 산격대교 남단네거리~상수도사업본부시설관리소삼거리 구간도 개선대책을 수립했으며, 올해 12월까지 개선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대영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잔여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간선도로 기능확보와 교통편의를 증진시켜겠다”라며, “대구시의 상습교통혼잡구간에 대한 '저비용 고효율 도로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행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박남서 영주시장, 선비촌·선비세상 찾아 운영실태 점검

휴가철 대비 '선비세상 활성화 선비촌 저자거리 물가' 집중 점검
“바가지요금 논란, 지속적 모니터링과 자정 노력, 선비품격에 걸맞은 손님맞이”

박남서 영주시장이 지난 19일 오후, 선비촌과 선비세상을 방문해 지역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민생현장 방문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23일 개최하는 선비세상·선비촌 활성화 간담회를 앞두고 직접 방문해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 시장은 현장에서 선비촌·선비문화수련원 입장객·체험객 현황과 선비세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입장료 현실화와 기획공연 발굴 방안 등을 살폈다.

최근 바가지요금 논란이 잇따르면서 지역 축제장과 관광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지도·점검에도 나섰다.

박 시장은 선비촌 저자거리를 찾아 가격 표시와 적정 요금제 이행 여부, 집객업소 위생관리, 종사자 친절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시는 주요 관광 집객업소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관광 안내소 등을 연계해 관광 불편사항 상담과 후속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영주시관광협회, 숙박업영주시지회, 외식업영주시지회 등 관계단체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합동으로 관광객 환대서비스 제공에 나선 방침이다.
윤근수/기자

박남서 영주시장은 “요즘 전국적으로 바가지요금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 이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역 상인들의 자정 노력을 통해 선비품격에 걸맞은 손님맞이를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장과 민생현장을 방문해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주요 현안을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오는 23일 시청 강당에서 선비세상·선비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한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선비세상 활성화와 방안과 관광지 물가 안정화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2023년 봄철 산불방지 '우수기관' 선정

윤경희 군수, “청송의 아름다운 산림 보호, 군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

청송군은 산림분야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기초지자체에 선정된데 이어 2023년 산불방지 “우수기관” 예도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경상북도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 실적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는 산불진화협력도, 산불진화시간, 자체훈련실적, 산불캠페인건수, 과태료부가건수, 가해자 검거 등을 포함한 11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청송군은 청송소방서, 국립공원공단, 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산불 예방캠페인 실시, 식목일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와 더불어 산불예방홍보, 산불예방 챌린지 등 선제적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산불발생을 최소화 하였으며, 특히 청송소방서와의 합동훈련을 비롯 해 “골든타임제” 운영을 통한 임차헬기와 항공지상 합동훈련을 정기적 실시한 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기초훈련과 기계화시스템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여 산불 진화 시 신속한 진화역량을 결집한 점 등의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았다.

한편 올해 청송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2건(소각 1, 낙뢰 1)이며 신속한 진화로 인해 피해면적(3.29ha)을 최소화 하였으며, 관내 산불뿐만 아니라 상주시 외남면 산불 진화를 포함한 12건의 타 시군 산불진화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무원, 진화대원, 감시원이 다함께 산불예방과 진화에 총력을 다해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송의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전국기능경기대회4회 연속 종합우승 초석 다져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지도 교사 연수 실시

- 임종식 교육감, "전국기능경기대회 4년 연속 종합 우승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

경북교육청은 지난 16일(금),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앞두고 도내 직업계고 기능경기 지도 교사 5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대한민국 기능경기의 표준으로 우뚝 선 경상북도 직업계고의 기능지도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4회 연속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우승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내용은 ▲기능경기대회 지원 방안 안내 ▲기능경기 실태 분석 ▲참가 학생 안전 지도 안내 등으로 구성됐으며, 연수에 참가한 지도교사들은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다양한 지도 역량을 공유했다.

아울러 내년 경상북도에서 개최 예정인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사전 의견 공유도 함께 가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 직업계고 학생들의 우수한 기능 역량은 교육청, 학교의 체계적인 지원과 지도교사들의 헌신적인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전국기능경기대회 4년 연속 종합 우승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장학회, 호국 영웅들을 위한 나눔에 앞장서다

참전 국가유공자 후손들에게 장학금 전달

- 임종식 이사장, "참전유공자 후손들도 항상 자긍심을 가지고 훌륭하게 성장하길"

경북북도교육장학회는 지난 19일(월), 화백관에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6.25전쟁, 월남전에 참전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참전유공자 후손들도 항상 자긍심을 가지고 훌륭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후손 20명에게 50만 원씩 매년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임종식 이사장은 "나라 사랑 정신을 미래 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따뜻한 경북교육의 노력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며,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참전유공자 후손들도 항상 자긍심을 가지고 훌륭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교육청, 신규 교감 리더십과 문제해결 능력 키운다

21일부터 이틀간 관리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오늘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경상남도 거제시 소노호텔에서 초·중·고

특수학교 신규 교감 95명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 지원을 위한 관리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시대 변화에 맞는 관리자의 역할 이해를 돕고, 소통·공감의 리더십, 교육공동체 문제해결 능력 키워주기 위한 것이다.

워크숍은 작가이자 방송인인 유인경 강사의 '행복과 성공의 열쇠, 관계를 말하다' 주제 강연과 분임 토의, 공감 토의·토론 실행 연수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1일에는 하윤수 교육감이 나와 '부산교육 비전 및 정책'을 주제로 강의한다. 하 교육감과 참가자들은 미래 교육의 방향, 부산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꿈을 현실로 실현하는 희망 부산교육을 위한 교감선생님의 열정과 헌신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우리 아이들의 성장 동력이 된다"며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부산교육이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고,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송종진/기자

교과와 연계한 재미있는 활동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청송 부남초, 행복 실천 학급 활동 운영

청송 부남초등학교는 지난 19일(월)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아침활동 및 틈새시간을 활용하여 각 교실에서 3~6학년 학생 8명을 대상으로 행복 실천 학급 활동을 운영한다.

행복 실천 학급 활동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 문화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교과와 연계한 활동을 통하여 과학적 탐구능력을 배양하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하여 즐거운 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번 활동은 과학과 연계하여 '자신만의 동물을 식빵과 과일 재료 등으로 꾸미기 활동'으로 먼저, 동물을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고, 분류한 동물 중 한 가지를 활동지에 주어진 재료로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 구상해 보고



록 하였다. 아이들은 구상한 대로 동물의 특징을 식빵에 표현해보고, 완성된 작품은 서로 맞혀보도록 하였다.

활동에 참여한 3학년 신○○학생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동물을 분류해 보고, 동물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식빵에 꾸미보니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작품을 보고 맞혀보는 활동을 하며 한참을 웃었어요."라며 소감을 전하였다.

부남초등학교장은 "교과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재미있는 활동을 하며 아이들과 웃음꽃이 가득할 수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행복해 진다. 앞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며 말씀을 전하였다.

윤근수/기자

경기도교육청, 가정에서 시작하는 인성교육, 경기 학부모, 온 마음으로 교육을 품다

광고신청사에서 함께하는 2023 온품 학부모교육 특강 시리즈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가정의 인성교육 기능 회복과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2023 온품 학부모교육 특강 시리즈 '학부모, 온 마음으로 교육을 품다'를 운영한다.

이번 온품 학부모교육은 ▲인성 품은 ▲미래 품은 ▲관계 품은 의미를 담은 도교육청의 학부모교육 특강 시리즈를 말한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7일을 시작으로 14일, 2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부모-자녀 간 긍정적 관계 형성과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을 주제로 광고신청사에서 특강을 진행한다.

7월 7일에는 임태희 교육감의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미래교육' 특강을 시작으로 조선미 교수(아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지혜로운 부모, 내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에 대해 강의한다.

14일에는 김동일 교수(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가 '인성교육의 시작, 성격이 역량이다'를 강의한다.

3회차 21일은 임태희 교육감의 '교육감이 들려주는 경기미래교육' 특강과 함께 김경일 교수(아주대 심리학과 교수)가 '우리 아이를 위한 행복한 소통과 공감'에 대해 강의한다. 특강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22일부터 포스터 하단의 각 회차별 QR코드를 통해 사

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할 예정이다.

특강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학부모참여지원센터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조중복 대외협력총괄과장은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과 인성교육 기능이 강조되면서 학부모의 교육참여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라며 "새로운 교육환경과 교육정책에 따른 학부모교육으로 학부모의 교육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 온품 학부모교육 특강 시리즈는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계획이며, 9월에는 미래교육을 주제로 권역별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광고신청사에서 함께하는 2023 온품 학부모교육 특강

학부모, 온 마음으로 교육을 품다

2023.7.7(금) / 7.14(금) / 7.21(금)

교육 기간 2023. 7. 7(금)-7. 21(금) 총 3회

교육 대상 경기도 관내 학부모 누구나

신청 방법 각 회차별 200-300명

신청처 경기도교육청 (☎031-249-0039)

신청기간 2023. 6. 22(목)부터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QR 코드를 개별 접속 후 참여신청

참가비 무료, 내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교육감이 들려주는 경기미래교육

인성교육의 시작, 성격이 역량이다

우리 아이를 위한 행복한 소통과 공감

7/7(금) 13:30-16:30 광고신청사 아레나홀 (13:30-14:00 사전 문화공연)

7/14(금) 14:30-17:00 광고신청사 대강당 (EBS 촬영 병행)

7/21(금) 13:30-16:00 광고신청사 대강당

이태희 교육감, 김경일 교수, 조선미 교수, 김동일 교수, 임태희 교육감



안산시 아동참여위원회, 건강권 이해 교육 실시

안산시는 지난 17일 안산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에서 아동참여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권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아동참여위원 가운데 미취학 및 초등 1~3학년 아동 위원들과 사회 복지법인 굿네이버스 경기안양지부에서 양성한 대학생 서포터즈들이 참여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에 따르면, 아동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며 안전하게 살아가는 권리가 '건강권'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아동들의 활동량이 현저히 줄면서 건강할 삶을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달음식 섭취가 증가한 반면, 과일 채소류의 섭취가 줄어 아동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참여위원회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0~18세의 아동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정책·사업 등을 직접 기획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이인근 안산시장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며 이들의 의견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안산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뿐만 아니라, 인스턴트·패스트푸드 등 배

한울본부, 어린이 뮤지컬 '프렌즈 신비의 손전등' 공연

6월 28일 수요일 10시 30분, 17시 총 2회 무료 공연, 300명 선착순 입장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 (본부장 박범수, 이하 한울본부)는 오는 28일 한울에너지팜 대강당에서 예쁜 빛과 그림자로 펼쳐지는 어린이 뮤지컬 '프렌즈 신비의 손전등'을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어린이와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10시 30분, 17시 총 2회 공연으로 휴식 없이 55분간 진행된다. 24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사전 예매 없이 선착순으로 300명까지 입장 가능하다.

놀이뮤지컬 '프렌즈 신비의 손전등'은 EBS 1TV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애니메이션 원작 가족뮤지컬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의 후속작으로, '프렌즈' 시리즈가 선보이는 실루엣 애니메이션 특유의 아날로그 감성으로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한다.

한울본부는 공연의 즐거움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모든 어린이 관람객에

게 '프렌즈 데코 스티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연 내용 및 관람 방법은 한울본부 인스타그램(@hi_hanul), 한울본부 홈페이지(hanul.khnp.co.kr)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한울본부 홍보부(054-785-2845)로 문의하면 된다.

윤근수/기자



거창문화재단, 뮤지컬 '수박 수영장' 공연 무료 관람 제공

(재)거창문화재단은 지난 16일 관내 11개 초등학교 학생 650여 명을 초청해 베스트셀러 그림책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수박 수영장' 무료 관람을 제공했다.

각 학교 관계자의 배려와 거창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진행된 공연은 초청된 아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번 공연 작품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3 공연유통협력 지원사업'에 선정돼 (재)거창문화재단과 (주)에이엠컬처가 협업을 통해 제작한 대형 어린이 뮤지컬이다.

또한, 이날 초청 관람은 거창문화재단 메세나(Mecenat) 사업의 하나로 관내 초등학교의 사전 신청을 받아 전원 무료로 관람을 진행했다.

메세나(Mecenat)란 기업이나 개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해 사회공헌과 문화경쟁력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재)거창문화재단은 경상남도 군 지역에 설립된 최초의 문화예술재단으로 메세나 사업을 통해 지역민을 위한 공연단 운영, 문화나눔 사업 등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나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장병철/기자



BTS 10주년, 완주군 인기도 급상승

뮤직비디오·화보 촬영지 'BTS-6로드' 스탬프투어 5천여 명 참여



방탄소년단(BTS) 데뷔 10주년을 맞아 BTS 뮤직비디오 촬영지인 완주군의 인기도 덩달아 급상승하고 있다.

서울 곳곳에서는 전 세계 아이(BTS팬클럽)들의 방문이 이어져 온통 보랏빛 축제 분위기인 가운데 완주군에도 'BTS-6로드'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월에 한국관광공사가 발행한 한류가이드북에도 완주군이 소개되기도

했다. 한류가이드북에는 "완주군은 '2019 썸머 패키지 인 코리아' 뮤직비디오와 화보를 촬영하면서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린 곳"이라며 "비틀스의 성지인 애비로드에 버금가는 장소로 자리매김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BTS가 완주군을 다녀간 직후인 2020년부터 운영한 'BTS-6로드' 스탬프투어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아이들이 줄을 이어 지금

까지 5000여명이 그 발자취를 따라 다녀갔다.

스탬프투어는 1로드와 2로드는 소양오성한옥마을 오성제와 아원고택, 3로드는 위봉산성, 4로드는 삼례비비정 5로드는 고산창포마을 마지막으로 6로드 구이 경각산 패러글라이딩 체험이다.

위 6곳을 방문해서 현장에 설치돼 있는 표지판 QR 코드를 인증하면 획득한 개수에 따라 BTS 포스터, 봉동생강잔액, 패러글라이딩 체험 할인권을 받게 된다.

완주군은 인기에 힘입어 오는 7월말까지 특별 추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스탬프투어 인증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추가적으로 BTS 굶즈상품을 추첨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의 숨겨진 문화관광자원들이 새롭게 조명받고 인기를 끌 수 있어 기쁘다"며 "완주군이 한류 팬들이 몰리는 한류관광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경남도립극단, 7월 정기공연 '평행우주 없이 사는 법' 티켓 오픈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을 현대 물리학으로 풀어내는 판타지 연극



경남문화예술위원의 경남도립극단 7월 정기공연 '평행우주 없이 사는 법'이 21일 오후 2시 인터파크를 통해 티켓예매를 시작한다.

이번 작품은 제41회 서울연극제 대상, 제10회 대한민국 국제대상을 해외 연극상 등을 수상하고 '친정엄마'와 '2박 3일, '고곤의 선물', '나생문' 등 작품 연출로 예술적 감각을 인정받으면서 대중에게 널리 사랑받는 구태환 연출가와 연극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코리올리누스' 등에서 인상적 무대를 선보인 임일진 무대 디자이너, '2002 월드컵 개막식', 드라마 '지붕 뚫고 하이킥', 연극 '에쿠우스' 등에서 작품을 맡은 김태근 음악감독이 함께해 관객의 기대를 높일 예정이다.

'평행우주 없이 사는 법'은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을 현대 물리학 담론과 병치해 꿈과 현실을 넘나들며 치밀한 심리묘사로 풀어내는 판타지 연극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끊임 없이 증명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질

적인 욕망과 불안을 '차연과 '노파'의 대조를 통해 마치 평행우주와 같이 연출한다. 무대를 오가며 대칭적으로 전개되는 두 인물의 이야기는 물감을 칠한 뒤 종이를 겹쳐 대칭적인 무늬를 만드는 '데칼코마니'를 연상시켜 관객들의 흥미를 더한다.

이울러, 지난여름 경남문화예술위원 대공연장 무대 위 객석 운영으로 관람객 만족도 96.7%를 달성했던 연극비박스 3story 9actor와 같이 '평행우주 없이 사는 법' 또한 무대 위 객석을 통해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특히 무대를 양방향에서 바라보는 양면 객석과 데칼코마니 무대를 운영해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각의 장을 펼친다. '평행우주 없이 사는 법'은 회당 80명의 한정된 관객만 함께 할 수 있어 서둘러 예매하기를 권장한다.

구태환 연출은 "이번 작품은 인간 존재의 알 수 없는 불안을 현대 물리학 담론인 '평행우주' 이론을 통해 새롭게 접근하고자 했다"며,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평행우주 없이 사는 법'이란 우리가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에서 해방돼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공연이 관객 여러분에게 인간 실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장재현/기자

청송사과 대한민국 사과의 자부심!

청송사과의 첫 경매가격은 그 해 사과 시세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10년 연속 수상에 빛나는 청송사과. 수출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K-푸드의 자존심, 청송사과. 사과는 빨강다는 통념을 깬 혁신 브랜드, 청송황금사과 '황금진'.

청송사과는 대한민국 사과의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www.yyg.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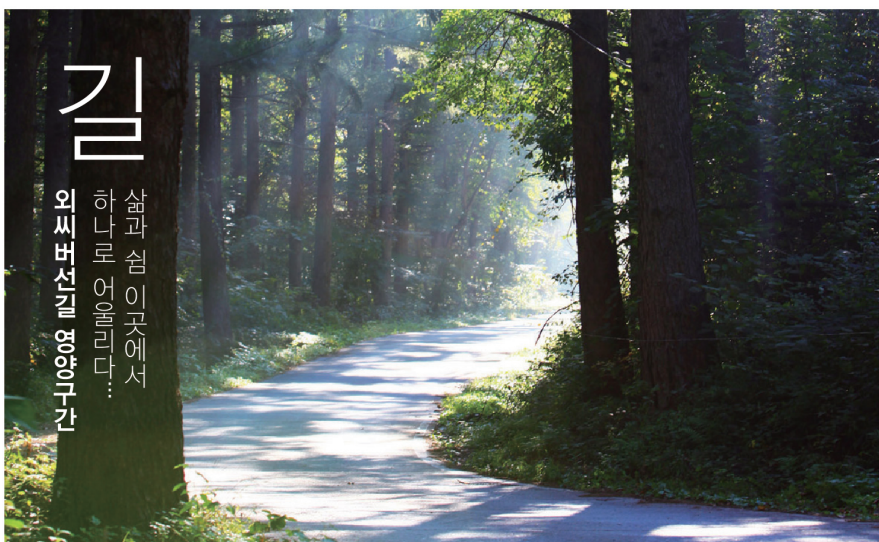
영양 들어다보시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 O O M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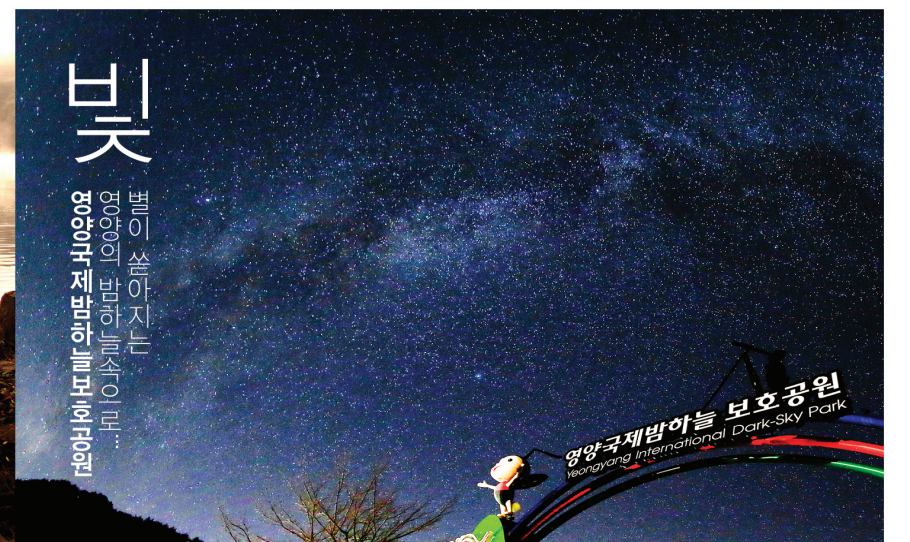
길

삶과 숨이곳에서
아름답게 영영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물

영양이 흐르는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얼

시공간의 대가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맛

사백년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